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내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17일)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염불은 신난다, 불교는 즐겁다 9월 1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염불 소리와 환호 소리가 함께 얽힌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4년 만에 개최한 제2회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다양한 모습의 염불이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타 등 악기연주와 랩, 댄스 등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톡톡튀는 스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은 이날 단체팀으로 참가한 스님들이 바라와 목탁을 들고 율동을 하며 구성진 가락을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교구중심제 '공감' 범위는 '이견'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 검증 위한 종책토론회 열려

중앙종회 · 본사주지협의회 주관
이틀간 두 차례 걸쳐 종책검증

혜총-직선제 등 인사제도 변화
원행-연금 · 의료보험 전액지원
정우-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지정
일면-복지사찰 지정해 승가복지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나선 네 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 주최로 처음 열린 종책토론회서 교구중심제 실현을 공통으로 주장했다. 다만 중앙의 행정업무 이관범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이견을 보였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9월 19일과 20일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영천 은해사에서 제36대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토론회를 개최, 후보들의 종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토론회는 중앙종회가, 20일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총무원장 후보자인 혜총 · 원행 · 정우 · 일면 스님 모두 참석했다.

네 후보는 모두 교구중심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앙에 집중된 행정업무와 권한을 교구에 이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교구에 이관할 기본 행정업무와 인사권 · 재산관리권 범위 등을 두고 후보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가장 차이가 두드러진 권한은 재산관리권이었다. 기호1번 혜총 스님과 기호2번 원행 스님은 각 교구에서 재산처분 등의 권한까지 갖도록 하는 교구중심제를, 기호3번 정우 스님과 기호4번 일면 스님은 재산관리권을 종단이 관장하는 교구중심제를 주장했다.

사법 성격의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는 혜총 스님과 일면 스님이 교구에 일임하는 방안을, 원행 스님과 정우 스님은 종단차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후보별 최우선 추진 종책은

총무원장 당선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종책에 대해 혜총 스님은 직선제와 본사주지 단임제 등 인사제도 변화를 꼽았다. 혜총 스님은 "간선제를 잘해왔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승가의 공평한 참종권을 위해 직선제를 실행해야 한다"면서 "본사주지는 단임제를, 말사주지는 10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행 스님은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내세웠다. 원행 스님은 "종단은 내년에 국민연금 3만6000원과 의료보험 2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대상이 1500여 명뿐이다. 이를 1만2000여 모든 승려들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1년간 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하고, 각 교구에서 일정부분 분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교구중심제와 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공약했다. 정우 스님은 "총무부장 소임을 볼 때 직영사찰서 얼마 이상 집행할 때 총무부장 전자결제가 필요하단 것을 알게 됐다. 호법부 인사조회와 분담금 납부 등을 중앙과의 전자결제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교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교구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면 승가복지 등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교구중심제와 복지사찰 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일면 스님은 "말사주지를 본사주지가 임명하고, 총무원 호법부 조사 대신 교구에서 상벌을 정하는 교구중심제가 중요한 것 같다"며 "해당 본사마다 복지사찰을 정하고, 일부 수입을 교구복지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 필요한 포교전략

현재진행형인 포교활성화와 관련해 네 후보들은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교기조를 세웠다.

혜총 스님은 봉은사 화주를 통해 3000평 대지에 33층 건물을 지어 포교단체 공간 제공과 임대수입이라는 포교전략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 불교문화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와 농촌 사찰 간의 결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우 스님은 포교를 위해 직접 활동한 극단 창단과 인터넷TV 운영 등을 예로 들며, 사찰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면 스님은 본사 주변 대도시의 토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하되 예산의 30%를 종단이 함께 모금해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종책토론회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종책과 관련해 후보자간 질의가 오가는 논쟁은 없었지만 폐쇄적인 기존 선거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후보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대부분 거시적이어서 종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A2 · 3면〉

쌍용차 사태 해결 9년 버팀목 역할한 조계종

쌍용차 해결, 불교계 역할과 의미

KTX에 이어 쌍차 사태도 오랜 노사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2700여 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사측과 전원복직 교섭을 타결했다. 2009년부터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불교계는 쌍차지부와 연대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며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차지부), ㈜쌍용자동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통해, 9월 14일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의 청와대 오체투지는 취소됐다. 같은 날 대한문 분향소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들은 전원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먼저 떠나간 노동자 26명 · 배우자 4명을 추모했다.

이 자리서 혜찬 스님은 " '낮은 자세에서 보라' 란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소외된 쌍차 동지들과 함께해 왔다"며 "이 땅의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태 해결의 의미를 전했다.

사회적 문제 인식 확산 기여

2009년 8월,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해고자 가족과 면담 후 이웃종교계에 쌍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화쟁위원회, 불교시민단체 등이 쌍차 해고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로하고 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노동문제에 힘을 보태는 시도가 초기에 이루어졌다.

2012년 4월, 쌍차지부는 다시 한 번 종단 문을 두드린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데 따라 불교의 노동문제 참여는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고인이 된 쌍차 해고자 천도재 봉행 △구속수감자 특별사면 청원 △노동문제 전담 기구 신설 등 쌍차지부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다.

그 과정서 불교계 주도로 범종교계부터 문제인식이 확대되었고, 언론을 통해 점차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충열 부지부장은 "조계종 스님들 덕분에 기독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계가 연합해주셨다. 종교가 가진 힘으로 여론이 조금씩 바뀐 덕분에 복직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분규 불교계 주요 활동

2009. 8. 4.	7대종교 긴급모임 제안
2011. 8. 16.	해고희생자 위로법회
2012. 2. 17.	해고희생자 천도법회
2012. 4. 5.	종단 차원 지원 약속
2012. 4. 21.	화쟁위, 범국민추모대회
2012. 5. 1.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요청
2012. 9. 17~12. 25.	10만배 릴레이 정진
2015. 10. 3.	마힌드라 회장에 항의서한
2017. 12.	합의불이행, 청와대 1인시위
2018. 3. 12.	문제완전해결 오체투지
2018. 8. 14.	故김주중 해고자 49재
2018. 9. 14.	노-사, 전원복직 합의



'쌍차' 계기로 노동문제 앞장

불교계와 쌍차지부와의 연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불교계는 쌍차 문제해결을 위해 했던 약속을 실천하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인권 문제에 앞장 서는 행보를 보였다. 노동위와 노동위가 확대 개편된 사노위를 중심으로 불교계는 점차 노동자들과 현장 곳곳에 뛰어들어 연대에 나섰다.

사노위는 불교적인 활동들을 함으로써 쌍차지부의 조속 복직과 피해자 명예회복, 정부 공식사과, 손배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노위 스님들은 긴 시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법회, 10만배 정진, 단식, 49재, 오체투지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소규모 투쟁장 도울 방법 찾겠다"

사노위는 향후 미해결 노동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노위 관계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소규모 투쟁현장을 위해 사노위가 함께 연대할 방법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종단 신뢰회복 화두… 첫째도 둘째도 '화합'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종책토론회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9월 19일 중앙종회, 20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주관한 이틀간의 토론회서 네 명의 후보자들은 대동소이하지만 각자 확고한 견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종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두 번의 종책토론회 내용을 정리, 질문과 각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후보별 각 분야 주요종책






	기호1번 혜총 스님	기호2번 원행 스님	기호3번 정우 스님	기호4번 일면 스님
최우선 종책	▶직선제 · 본사주지 단임제 ▶비구니교구 설립	▶국민연금 등 전액지원 ▶1만2천여 승려로 확대	▶교구중심제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교구중심제 ▶교구별 복지사찰 지정
포교전략	▶화주로 33층 빌딩 건설 ▶포교단체 임대 제공	▶불교문화특별위원회 구성 ▶신도시 포교 전념	▶문화중심 포교 접근 ▶지역 이바지 도량 변화	▶지역 불교회관 중앙 재정지원
교구중심제	▶인사권 · 징계권 · 재산권 교구 이양	▶인사권 · 재산권 교구 이양	▶인사권 교구 이양 · 겸직금지 해제	▶인사권 · 징계권 교구 이양
신뢰회복 방안	▶수행과 포교 매진	▶소통과 화합 위한 위원회 구성	▶포교현장 확대로 활동 강화	▶종단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앞서 각 후보별 인사말

혜총 스님 : 1953년 스님이 돼 자운 스님을 40년간 모시면서 수행했다.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종단 위해 일해왔다. 1994년 종단개혁 때도 그렇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종단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이를 확립해야 불교도의 신앙심과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4가지 기조와 각각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정리했다. 67년간 수행정진한 역량을 바탕으로 종단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모든 사부대중과 국민이 바라보는 엄숙한 자리를 빛나게 하겠다. 저의 원력에 힘을 보태 달라.

원행 스님 : 화합과 소통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앞서 일련의 종단 사태를 직면하고, 함께 고민해온 측으로서 종도와 불교를 위해 모든 역량과 정성을 바치겠다.

이를 위해 7개의 중점 종책을 세웠다. 최우선적으로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이 하나 돼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스님들의 복지정책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교구중심으로 종단을 이끌어가겠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스님과 신도 교육에 매진하겠다. 끝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한편, 사회에 환원하는 회향의 정신이 담긴 종책을 펼치겠다.

정우 스님 : 출가한지 50여 년이 됐다. 구룡산 자락에 포교당을 개원하고 30년 이상을 대중포교 현장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총무부장 소임을 보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지금 종단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10대 운영기조를 설정했다.

1984년과 1994년 소임을 살던 당시와 달리 지금의 종단은 큰 조직으로 확대됐다.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겠는가. 교구본사중심의 행정을 하면 가능하다. 원탁회의처럼 많은 스님들과 풀어갈 난제가 많다. 불교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승가복지와 비구니 권익향상, 종단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현안을 다뤄야 한다. 평소 승가공동체는 종지를 따르고 공유의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참여하며 이바지하는 승단이 되도록 하겠다.

일면 스님 :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은사이신 명허 스님께서 부르셨다. 은사께서 "너는 이제 글공부 그만하고 참선해서 도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을 때 "물론 참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인은 참 많다. 저는 행정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후 복지, 사찰운영, 학교운영 등 다방면에서 공부를 하다 큰 병을 얻었다. 부처님 은혜로 살아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면서 출마했다.

저의 장점은 2가지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 하는 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종책은 세 후보들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1. 당선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종책은?

혜총 스님 : 직선제를 실시하겠다. 간선제는 여태까지 잘했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본사 주지는 단임제로, 말사 주지는 10년제로 변경해 권력 집중을 막고 현장포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 승려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을 위해 비구니교구를 만들고, 중앙종무직에 30~40%를 등용하겠다.

원행 스님 : 1만2천여 승려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겠다. 현재 1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1만 명까지 확대하면 약 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승보공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교구별 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정우 스님 : 교구중심제를 실현하겠다. 호법부 인사조회와 분담금 납부 등을 중앙종무기관과의 전자결제로 진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교구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 교구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해 수입을 교구 승가복지 등에 활용케 하고, 중앙분담금 28억 원을 포교 낙후지역에 활용하겠다.

일면 스님 : 교구중심제를 추진하겠다. 말사주지 인사권 등을 교구본사주지가 갖도록 하고, 본사 내 문제도 총무원 호법부보다는 교구에서 상벌을 정하도록 했으면 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교구마다 복지사찰을 지정, 수입 예산을 복지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종단 안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은?

혜총 스님 : 승가는 곧 화합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신도는 신도다울 때 가능하다. 이는 율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사리불 존자는 제자의 위의를 보고 귀의했다. 아쇼카 대왕도 14살 사미를 보고 귀의했다. 포교와 수행, 함께하는 종단으로 가야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원행 스님 : 소통과 화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모든 후보 도덕성 자신… "문제 시 즉각 사퇴"

하겠다.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특히 비구 · 비구니 이부중은 교육과 수행 등을 균등히 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조로 함께했으면 한다.

정우 스님 : 포교 현장에서 종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에 걱정이 많다. 우리들의 관심이 현장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전국비구니회, 대각회, 선학원 등이 많이 노력한다.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또 어른과 중진스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 중앙종회에 발의했으면 한다.

일면 스님 : 종헌종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해서 종도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 시대정신인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어나가겠다. 또 신행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종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단미래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

3. 미래사회 포교전략에 대해서

혜총 스님 : 현재 포교사뿐만 아니라 포교단체 500개가 포교공간이 없어 전전하며 산다. 종단이 보장하는 것이 없다. 봉은사 화주를 통해 3000평 대지에 33층 건물을 지어 세를 주고, 12만5천 명이 함께 법회 보는 것을 꿈꾸고 있다.

원행 스님 :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다. 총무원장 직속으로 불교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도시 포교당을 짓는데 전념하겠다. 또한 도농 간 협력을 통해 도심사찰과 농촌산사 결연을 추진하겠다.

정우 스님 : 우리 절에서는 축원할 때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이라고 한다. 1990년대 불교TV에서 애를 썼고, 1987년 극단 신시를 만들었다. 최근 인터넷 TV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바라는 포교의 모습이라고 본다. 지역에 이바지하는 도량이 돼야 한다.

일면 스님 :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본사에서 도심지에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70%는 해당 교구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총무원장이 함께 모금해 지원하겠다.

4.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생산불교가 필요하다. 각 후보들의 생각은?

혜총 스님 : 한 예를 들자면 선운사에는 천일염이 있다. 개암사라고 하면 죽염이 있다. 불교도가 쓰는 천일염과 죽염을 만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겠는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행 스님 :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정신을 기본으로 하되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철저히 계율을 지키도록 하고, 생산불교에 임하는 분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출가수행부와 보살불교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우 스님 : 군종교구장 시절, 장교들에게 해외불교계의 생산불교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역 후 어떻게 살지 고민할 수 있게 했다. 충북 제천에 4만평의 불교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할 줄 알면 포교 원력을 살릴 수 있다. 종단서 머리를 맞대면 생산불교 구현이 가능하다.

일면 스님 : 꼭 생산적이라고 해서 논밭을 갈고 수확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스님들은 정신적으로 계발해서 일반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위로하고, 절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 생산과 관련된 것은 불자기업가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5. 교구중심제가 모두의 공약이다. 어디까지 교구중심이고, 본사 인력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혜총 스님 : 재산권까지 교구에 이관해야 한다. 교구본사 내에도 협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에서 총무원에 권한이 집중된 것은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상벌권 역시 교구에 넘기고, 총무원은 대사회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을 교육원, 포교원 지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원행 스님 : 교구중심제를 위해선 각종 법령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무원은 대사회적인 업무와 승적, 징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재산권과 인사권은 교구에 이양해야 한다. 인력문제는 교구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총무원 상주 직원을 줄이고, 본사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면 극복할 수 있다.

정우 스님 : 재산권은 종단이 관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 본사주지들이 7직을 임명하는 것처럼 말사주지를 임명하도록 하겠다. 특히 겸직금지를 풀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문제는 중앙종무기관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본사와 수말사들이 작은 총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면 스님 : 재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교구에 이관할 마음자세를 갖췄다. 힘 있는 교구본사의 권한도 골고루 분배하도록 노력하겠다. 총무원장은 대정부적인 것에 앞장서면 된다고 본다. 솔직히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원장이 되면 충분히 의논해 처리하겠다.

6. 당선 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혜총 스님 : 출가수행자들은 삭발염의하고 계를 받는다. 계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인천의 사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해 오늘날 사태가 벌어졌다.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수행과 포교에 게으르다면 당연히 종도가 탄핵시켜야 한다.

원행 스님 : 같은 생각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허물이 그만큼 무겁다면 즉각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정우 스님 : 오랜 세월 참회할 일도 있겠지만 뻔뻔하게 가만히 있진 않겠다. 출가 후 50년간 떳떳하게 살았다. 30년 넘게 대중포교를 해왔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부대중이 용서치 말아야 한다.

일면 스님 : 최대한 양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다. 과오가 있다면 그날부로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다.

정리=신성민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9월 1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종회가 주관한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토론회.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無心, 대행 선사 관법수행·실천행 근간"

정운 스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어록 속 무심 사상 연원들
금강경 등 대승경전 통해 조명
"무한한 힘을 가진 '主人空'에
수행·실천 무심하게 작용 강조"

첫 발표회… 연 4회 진행 예정
원효 오도처 조명 연구도 눈길

대행 선사(1927~2012)의 수행과 보살행에 나타난 무심(無心)을 대승불교 사상을 통해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9월 14일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안양 본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계절발표회에서 '대행 어록에 나타난 무심사상'을 발표하고 대행선에 내포된 무심사상을 조명했다.

선관(禪觀)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무심'임을 강조한 정운 스님은 대행선에 나타난 무심 사상의 연원을 〈금강경〉·〈유마경〉 등 대승경전에서 찾았다.



스님에 따르면 〈금강경〉에서는 번뇌를 여읜 자리인 보리심(菩提心)·무주심·청정심 등을 깨달음의 경지로 보았으며, 특히 무주의 청정심의 경지는 본래 성불된 본각의 경지라고 주장했다. 〈유마경〉에서도 본래성불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탈·열반·보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운 스님은 "불성과 본각, 본래성불은 대행선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중국 초기 선종 성립 무렵, 선사들의 사상적 근거이기 때문에 대행 선사도 역대 선사들과 동일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행 선사가 강조한 믿고 맡김·관법·수행차제·보살행·일상 등에서의 무심을 선사의 어록을 통해 살폈다.

스님은 대행 선사가 밝힌 '주인공(主人空)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경우 〈대승기신론〉서 강조한 신심 등과 동일하다고 봤으며, 일체를 맡겼음에도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아상'과 '아만' 때문임을 지적했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에게 맡겨놓았다면, 그 다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했다"고 밝힌 정운 스님은 "이는 자신이 '믿고 맡긴다'는 관념도 없이 주인공에 믿고 맡기며 관념조차 두지 않은 무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믿고 맡긴 뒤에 주인공에 대해 지켜보는 관(觀)의 단계에서도 대행 선사는 무심을 강조한다. 아집과 아상이 없는 경지가 바로 무심의 경지"라며 "이는 〈금강경〉에서 이상(離相, 모든 차별상을 떠난 열반의 모습)의 경지가 적멸세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운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제시했던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共食)의 오공(五共)사상 안에는 무심의 보살행이 담겨 있음을 주장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관념이나 집착이 없는 불이(不二)적 무심의 삶을 대행 선사가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운 스님은 "대행 선사는 무한한 힘을 가진 주인공에 수행과 실천행을 무심하게 작용할 것을 강조한다"면서 "수행차제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경계에서도 자심(自心)을 무심으로 돌려놓으라고 했고, 보살행에서도 욕심과 집착을 비울 것을 선사는 대중에게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원효의 구법행로와 오도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효의 오도처가 현재의 천안시 직산읍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B6〉

연구자들의 논문발표에 이어 서영일 한백문화연구원장·고영섭 동국대 교수·황금연 동국대 교수·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의 논평과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이 새롭게 마련한 '계절발표회'는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로 연 4회 개최된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 목포지원장 혜당 스님, 문경지원장 청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자 스님과 교수님들에게 대행 선사의 사상과 원효 성사의 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오늘 발표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 원효 성사의 사상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물들고 모두가 한마음의 덕화와 공덕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출판협,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공고

10월 1~8일 접수, 11월 발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접수 가능한 도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기간에 국내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서적으로, 불교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선정 종수는 올해의 불서 10종 및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 우수상 2종이다.

대상에는 1000만원, 우수상에는 각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 수상한다. 나머지 선정도서 및 번역상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결과는 11월 말 개별통지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본 서지정보와 개요를 자유 양식 500자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운주사 내 불교출판문화협회다. (02)3672-7181 윤호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완료

중선위, 19일까지 접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세영)은 9월 19일 오후 5시까지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교구·직능대표·비구니 부문에 걸쳐 총 117명이 입후보를 마쳤다. 부문별로는 교구대표는 76명, 직능대표는 31명, 비구니는 10명이 입후보했다.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교구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경선 없이 이뤄지는 곳은 신흥사·직지사·불국사·금산사·화엄사 등 7곳이다.

가장 많이 후보자가 입후보된 곳은 범어사로 총 6명의 스님들이 후보로 나왔다. 5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친 곳은 3곳으로, 직할교구·용주사·해인사다.

또한, 현재 공권정지 10년·법계강등 징계를 받은 영담 스님도 쌍계사 중앙종회의원으로 입후보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⑭

최정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지부 간사

"호스피스는 불교 알리는 숭고한 일"

"호스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요양원에서였어요. 한참을 돌보던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끝까지 지켜주고자 이 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지부 간사 최정순 씨(관음행, 61세)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돌봐왔다. 2004년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던 그녀는 2013년 호스피스 활동에 나섰다.

그녀는 2013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재병원 봉사활동을 하다 2014년부터 울산대학병원에 호스피스 활동가로 임하고 있다.

"병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



사진 앞열 첫번째가 최정순 씨.

요양원서 임종봉사 발심
환자 광명진언 외울때 보람

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마음을 함께 편하게 해드리면 제 마음 또한 편안해집니다. 숭고한 일이죠."

그녀는 처음 병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호스피스를 권하러 환자들에게 가면 기독교인으로 보고 불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워낙에 이쪽이 기독교가 먼저 나선 분야예요. 울산대학병원에도 가톨릭 원목실은 있는데 불교법당은 없었어요. 불교 환자들이 개종도 많이하고, 불자임에도 임종시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의식을 하곤 했죠. 그래서 '종교의식을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의례히 기독교 의식인지 알고 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씩 불교의 활동을 알려가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는 한 임종 직전가 환자를 몸을 씻을 때 진언을 외워주며 임종맞이를 도운 것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했다.

"보통 환자들과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는 그렇게 씻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요청하셨죠. 씻겨드리며 광명진언을 외우는데 좌탈입망처럼 별세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족들의 임종 또한 마음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몸이 건강치 않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건강이 안 된다면 머리 감겨주고 발마사지 해주고, 이불빨래를 하는 등 육체적인 봉사는 힘들지만 법당에서 상담하고 불교를 알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디지털 중독 예방, 불교명상이 해답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9월 18일 3대 종교포럼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럼에 앞서 3대종교 대표자들이 디지털 중독 예방에 나서자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3대 종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는 9월 18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종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상담개발원과 교회정보기술연구원, 가톨릭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등에서 참여해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각 종교별 대응 현황과 사업 진행방향을 공유했다.

불교, 명상으로 과의존 극복

이날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명상을 통한 디지털 과의존 극복을 강조했다. 스님은 "농경시대에 근간했던 불교는 4차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릴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최근 명상을 통해 인간 존엄성 회복과 자아실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과의존은 낮은 자존감과 소외감, 외로움 등으로 발생한다. 부처님은 그러한 느낌의 생성과 소멸을 여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한다고 하셨다"며 불교명상의 효과를 설명했다.

스님은 "명상의 과학화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대중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 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지원 체계와 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사업단 등 종단 체계, 전국의 사찰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번째 불교계 발표자로 나선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불교계 과의존 방지사업 현황과 개선점을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특히 "개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과 예방사업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사찰 관심과 인식은 부족하다. 또 불자인구 고령화와 유아동 청소년의 감소로 사업수행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사무국장은 "과의존 예방교육과 강사에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진행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향후 사업 추진방향으로 △기초조사를 통한 사업대상 및 방향 설립 △불교 가르침에 기반한 과의존 이론 정립 △명상 활용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과의존 분야 전문가 확보 및 예방강사 양성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기관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웃종교계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사업 현황도 공개됐다.

이웃종교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 어떻게 하나?

먼저 가톨릭의 경우 디지털 금식을 실시하고 매주 스마트폰 없이 성당오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음이 소개됐다.

오현희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성가정상담팀장은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부모 교육 등과 함께 성당에서 사순수첩 실천표에 디지털 금식 실천여부를 표시하고 불편함을 통해 영성을 느끼는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주일학교 초등3학년과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1박2일과 함께 매주 스마트폰 없이 성당오기 등도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은 전국 15개 교구에서 스마트쉼 운동으로 꾸르실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3박 4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다.

이와 함께 가톨릭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도 교육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기도체험에 대한 질문과 숙제, 이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페이스북으로 기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청소년 축제에서 생명존중 활동 사진을 담아 SNS에서 공유하고 주보를 QR코드를 읽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종무원 권익보호' 조계종 노조 출범

종무기관 · 산하단체 · 본말사 포함 산별노조

조계종 종무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산별노조가 출범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는 9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조계종지부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종무원 40여 명을 중심으로 조직됐지만 교구본말사 종무원 등 종단 내 모든 종무원을 포함하는 산별노조다.

40명 중심 우선 조직, 점차 확대
"조직문화 개선 · 고용안정 실현"

조계종지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종무원이자 노동자다. 개혁불사 초심으로 종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우리의 자긍심은 순응적인 문화, 줄서기 문화 속에 무너져 버린 지 오래"라며 "애종심과 쇄신은 누군가에게 증명이라도 해야 할 듯 거리에서 사찰에서 우리 스스로를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용어가 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계종지부는 이어 "우리는 노동조합을 출범하며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일터인 종단과 사찰이 세상에 든든한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직문화 개선과 종무원 인권 및 권익향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직장 내 성평등, 근로조건 개선 △불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 △참된 민주주의 구현 위한 사회적 연대 실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지부는 또한 중앙종무기관보다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로부터 종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심원섭 지부장은 "산하기관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된 사례,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종무원들 내에서도 우리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 건전한 중간지대의 목소리가 표출되지 못한 채 한쪽에 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지부는 또한 노조 출범이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임을 전제하면서 향후 전면적으로 가입원서를 받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댄스 · 기타연주, 이젠 염불도 새롭게"

조계종 교육원 제2회 학인염불시연대회 성료

악기연주, 댄스 접목한 염불 눈길
응원막대 활용해 조직적 응원펼쳐
법주사 법륜 · 동학사 현태 스님
사미십명 · 봉청금강팀 대상 영예

2014년 첫 선을 보이며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가 9월 19일 두 번째로 열렸다. 4년 만에 열린 경연인만큼 학인 스님들은 악기연주와 댄스 등을 접목한 다채로운 염불을 선보여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9월 19일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500여 대중들로 가득찼다. 전국에서 응원 온 각 사찰 학인 스님들과 신도들은 저마다 피켓과 응원도구를 들고 응원전을 펼쳤다.

올해 대회는 전통염불과 창작염불 2개 분야에서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뉘어 총 4개분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예선에서는 15개 사찰에서 개인 25명, 단체 8개팀의 총 115명이 참가 했으며 이를 통과한 개인 12명, 단체 8개팀이 본선에서 솜씨를 뽐냈다.

이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스포츠댄스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접목한 법주사 승가대학 2학년 정륜 스님의 무대였다.

처음보는 댄스와 염불의 만남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도 터져 나왔지만 큰 박수와 함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개인부분 대상을 수상한 정륜 스님은 "출가전 스포츠댄스를 익혔다. 원래 스포츠 댄스는 커플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춘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맞췄다. 염불의 가락 속에는 고유의 흥이 있어 이를 스포츠댄스와 접목해 전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수행에 전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염불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개인 12명, 단체 8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이밖에 통기타 반주와 함께 경허선사 참선곡을 선보인 운문사 진정 스님 등 기타연주팀이 많았다. 또 특별시연에서 지난 1회대회 우승자 보문 스님은 하모니카 연주와 관음보살정근을 접목해 선보이기도 했다.

단체팀 경연에서는 스님들의 염불과 함께 조직적인 응원이 돋보였다. 운문사와 청암사,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서는 머리띠 등을 두르고 응원막대 등을 활용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단체팀 대상은 운문사 봉청 금강팀과 해인사 사미십명팀, 개인 대상은 법주사 정륜 스님과 동학사 현태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전국 방방곡곡 '산사' 문화재 만나보자

문화재청, 산사 34곳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7곳의 산사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전통산사 내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34선 △'문화재야행' 27선 △'생생문화재' 132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97선 등 총 290선을 선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들은 지역 소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24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290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고품격 산사 문화프로그램이다.

총 59건의 신청 중 34건이 선정됐으며, △논산 쌍계사의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밀양 표충사의 '산사에 울려 퍼지는 호국의 메아리', △남원 실상사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순천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 전국 산사가 가진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과 대구 동화사, 인천 용궁사, 춘천 청평사, 정선 정암사, 영동 영국사, 서산 일락사 등 6개 산사를 추가로 선정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
Gaya filial duty(Hyo) culture festival
가야왕도 500년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6일 토 7일 일
찬란한 가야문화 2000년 시민과 함께하는
장소 김해 수릉원
김수로왕, 허왕후, 장유화상 추모 다례재
부모은중경 서각. 인경체험 및 전시
가야문화중흥기원. 금강경독송 1080배
김해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점심대접)
특별출연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주제 : 가야」
국악명창 김영임 개막식 축하공연
주요행사
김준호, 손심심 孝콘서트
가야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가야청소년 백일장 대회
가야 '극' 페스티벌
아시아6개국 전통음식 축제
아시아 전통의상 퍼레이드
체험행사
장군차, 대용차, 꽃차 시음
붓글씨, 달마도 그리기
동자승, 단청 그리기
몸펴기 생활운동
세계의상 체험
주최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주관 김해시불교연합회, 이웃을생각하는모임, 사단법인 가야문화예술인연합회
후원 경상남도, 김해시, 통도사, 범어사, 성주사, 은하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 영남매일·YN뉴스, BTN, 현대불교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6〉 호근동 봉림사

감로수 솟던 도량, 4.3 광풍에 풍비박산



봉림사 전경. 1929년 육지에서 온 최혜봉 스님이 용주사라는 사명으로 사찰을 세운 것을 시원으로 한다. 제주 4.3사건 당시 용주사는 전소됐다.



오춘길 봉림사 도화주 보살. 4.3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서귀포시 호근동 봉림사(주지 일경)는 하논 분화구 내 중턱에 위치한 사찰이다. 하논은 '많다'의 제주어로 큰 논, 넓은 논을 의미한다. 밭농사가 주를 이뤘던 제주에서 사계절 마르지 않는 논에서 쌀농사를 짓던 곳이다.

그 물줄기가 바로 봉림사 일대에서 흐르는 속칭 '원샘동네'라 불리는 물이다. 봉림사 대웅전과 감로당 사이에 맑은 용천수가 흐르는데 그 맛이 감로수나 진배없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할 때만 물이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용천수는 신성시 되고 있다.

그렇게 '원샘'이 솟아나던 터에 지난 1929년 최혜봉 스님에 의해 용주사(龍珠寺)라는 사명으로 창건됐다.

당시 혜봉 스님이 이곳에 창건 원력을 세우자 김복남 거사가 절터 1660㎡(473평)를 시주한 것이 불법 홍포의 시초라고 한다.

혜봉 스님은 지난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 당시 교무회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왜색불교 타파에 앞장섰던 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48년 4·3이 발발하면서 용주사 역시 그 회오리에서 빗겨나지 못한다. 전각은 그 해 11월 토벌대에 의해 전소됐고, 그나마 남아있던 부속 건물과 불기 역시 그 후 잿더미가 됐다. 당시 스님은 불상과 탱화 등을 지고 남의 집을 빌려 임시 거처로 사용하다 1953년 초가 법당과 요사채를 재건했다고 전해진다.

1929년 혜봉 스님 창건… 4·3 당시 토벌대 의해 전소

불상 이운 도중 떨어져 파손, 결국 땅 속에 안장하기도

민가 전전하며 명맥 유지하다 신도들 불심으로 제2 창건

올해 97세의 연세지만 이를 오롯이 기억하는 오춘길 봉림사 도화주를 만난 건 커다란 행운이었다.

"최혜봉 스님은 육지 분이셨는데 당시에도 주석을 하고 계셨어요. 육지에 친척이 있어 볼일을 보러 나가셨다가 그만 4·3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이후로 뵐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봉림사는 4·3으로 전소되면서 불상을 호근리 이장 가택으로 이운을 한다. 가마에 곱게 모시고 부처님을 이운하던 중, 비탈길을 오르다가 그만 부처님이 가마에서 떨어져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로인해 부처님의 이마에 상처가 생겨,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자리에서 신도들은 땅을 파서 부처님을 안장해 드린다.

이처럼 불상사에 염불을 집전할 스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신도들이 집안의 일이 있거나 재를 지낼 경우만 인근 사찰의 스님을 모셔서 재를 지내며 명맥만 유지해 나간다.

이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진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호근리 동산에 빌어 인법당을 짓는다. 3년 동안 신도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절만 해도 물이 귀했던 시절이다. 그러던 중 4·3이 평정이 되었고, 용천수가 흐르던 옛 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도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터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다 지난 1968년 주지로 부임한 혜공 스님이 용주사를 황림사(潢林寺)로 개명하면서 대웅전을 중수했다. 이후 1983년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에 적을 두었던 일경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찰명을 봉림사(鳳林寺)로 다시 변경했다.

일경 스님은 "현재 감로당(요사채)이 자리잡은 곳에 당시 대웅전이 들어서 있었다"면서 "당시 대웅전은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여름철이면 화탕지옥(火湯地獄)이나 다름 없었고, 장마철이면 비가 새는 등 부처님을 모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그 후 여법한 법당 조성을 위한 원력을 세우게 된다. 시주금과 기도비를 한푼 두푼 모아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등 10년의 각고 끝에 지난 1994년 대웅전을 완공했다. 대웅전에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협시불로 관세음·대세지보살이 봉안돼 있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봉림사

소개령으로 마을과 사찰 전소

'하논' 지역 잃어버린 마을 전락

봉림사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말사이다.

1929년 최혜봉 스님이 용주사로 창건하였다. 호근동 하논 분화구의 높은 언덕 지경에 있다. 최혜봉 스님은 1945년 12월 해방이 되면서 왜색 불교를 반성하고 새로운 불교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에 참석하였고 교무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하논은 16여 가호가 살던 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19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민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토벌대가 소개령으로 마을을 모두 비우게 하였고 마을 전체가 소각되었다. 소개령은 더 이상 마을을 근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었으므로 가옥을 불사르는 것이 함께 진행되었다. 제주4.3사건 이후에도 주민들은 하논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하논은 제주4.3사건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 표석이 건립되어 있다.

용주사도 하논 마을과 함께 1948년 11월 19일 18평 정도의 초가 법당과 요사가 모두 마을과 함께 불질러졌다. 석자 크기의 석가모니 불상과 칠성탱화 등을 업고 지고 나왔다. 호근동 마을 큰영구장 지경의 남의 집 밖 거리를 빌려 임시 거처로 2년 가까이 사용하였다. 돌아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던 시절이라 호근동 옆 서호동 박애작동산 인근의 밭을 빌려 16평 정도의 인법당을 짓고 3년 정도 머물렀다. 그 사이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영단탱화 등이 훼손되어 버렸고, 토불이었던 불상은 옮겨다니던 중 훼손되어 매불하였다.

1953년 용주사 터로 돌아와 신도들이 용주사 재건을 위해 힘썼다. 홍리에서 집을 하나 사다가 법당을 지었다.

기존 건물의 불타고 남은 석재 등은 뜯어서 조왕단을 지었다. 스님을 구할 수 없어 신도회가 주관이 되어 인법당으로 복원하였다. 신도들이 흙질을 하며 초가집을 지었다. 20평의 초가 법당과 15평의 요사로 복원하였다. 용주사는 1968년 대웅전을 중건하여 황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3년 다시 봉림사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대웅전은 1994년에 완공하였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에너지 다이어트, 우리를 살리는 원천

⑤ 에너지 낭비로 인한 문제

기후재앙, 가장 무더웠던 올 해 여름

가을이다. 힘들었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공기가 서늘해지니 이제 살맛이 난다. 하늘도 푸르고 야외활동을 두렵게 했던 미세먼지도 줄어들면서 청명한 초가을을 느끼고 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올 해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힘든 여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또한 이러한 무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앙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와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 이번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언론은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거나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엉뚱하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침을 내 놓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당연히 정부가 걱정하고 덜어줄 필요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기후 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돌이켜보면 혹한으로 여기저기 수도관이 얼고 보일러가 터져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겨울이 생각난다. 전남 곡성의 우리 집에 벚꽃이 만발하고 사과꽃이 아름답게 피었던 지난 4월, 갑작스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사과꽃이 얼어버려 올 가을 우리집 사과 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시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호두꽃도 냉해를 입어 올 가을 호두도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막 싹이 올라왔던 감자도 냉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잘 이겨내주었고, 산에는 고개를 들고 올라오던 고사리가 얼어버려 안타까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상승하는 기후대, 변화하는 작물재배와 어종

그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는 사과 농사의 주 생산지가 대구에서 영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재배가 어려웠던 아열대 작물인 망고, 용과, 구아바, 아보카도, 여주 등이 재배되고, 전남 보성에서 유명한 녹차 역시 재배지가 북상하여 강원도 고성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 어종의 변화도 확연하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도루묵의 어획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난대성 어류인 오징어는 동해, 남해, 서해를 가리지 않고 잡히고 남해 어종인 멸치도 동 서해를 가리지 않고 잡히고 있으며 제주도 인근에서만 잡히던 옥돔이 독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는 아열대성 어류인 청줄돔, 쥐돔, 가시복, 참다랑어가 출현하고 있다. 봄꽃의 개화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이런 정도를 넘어서 기후 재앙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가량 상승한 상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명 물 부족 △생물종 중 20~30% 멸종 △1000~3000만 명 기근 위협 △3000만 명의 홍수 위험 노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심장마비 사망 △그린란드 빙하,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4,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는 남의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알다시피 과다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과 감축만이 해결책인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 그리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에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해 방안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채택하였다. 이후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파리협정문에는 "2℃ 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헌량(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약칭 INDC)을 정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감축목표량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2℃보다 낮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성찰과 에너지 다이어트

우리나라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전 지구인들이 겪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우리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깊은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 여름의 더위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해야할 일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 나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내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쇼핑, 식사,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알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전기사용, 냉난방, 식사, 쇼핑,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를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 집에서 전등, 창문, 냉난방기, 가전제품 등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이는 습관을 기른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식생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공부문 배출량의 4배, 도로교통부문에서의 배출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51%에 달한다. 그러므로 육류위주 식습관을 채식위주로 바꾸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대중교통이 더 잘 이용되도록 교통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에너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 〈에너지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사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꾸준히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에너지 다이어트도 여럿이 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불교환경연대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칸쇼지’, 순례 의지 다잡는 도량

〈關所寺〉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⑥ 순례길 첫 칸쇼지

다이니치지(大日寺)의 아침예불에는 꼭 법문이 함께 한다. 순례자가 많든 적든 반드시 간단하게나마 법문이 진행된다.

“시코쿠의 네 현의 이름은 토쿠시마(德島)·고치(高知)·에히메(愛媛)·카가와(香川)입니다. 여기서 앞머리만 떼어 볼까요? 덕이 높고(德高), 사랑의 향기(愛香)가 난다는 뜻이 됩니다. 시코쿠 순례를 하는 모든 순례자 분들이 높은 덕을 갖추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이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코쿠 네 현의 이름을 따온 법문을 들으니 시코쿠 순례길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이 순례가 끝날 즈음에 난 덕과 사랑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선다.

이미 17번까지 순례를 했으니 곧장 18번 온잔지(恩山寺)로 향한다.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가면 되는 길이지만 이번엔 고갯길을 넘기로 한다. 이전 순례들에서 산을 타기 싫어 시내를 통과하는 길을 잡았다가 길을 잃고 헤맨 까닭이다. 사실 길만 잃지 않고 걷는다면 시내를 통과하는 길과 고개를 넘는 길의 소요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고갯길로 접어들기 전에 잠깐 옆길로 새기로 마음먹는다. 어차피 오늘 참배할 사찰은 두 곳, 납경소가 열려있는 시간에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순례길 옆으로 살짝 빠져나온 192호 국도변. 또 다른 젠콘야도 ‘사카에 택시’를 들르기로 한다.

사카에 택시는 토쿠시마 시에선 꽤나 유명한 젠콘야도. 나 역시 여러 번 신세를 진적 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회사 2층 한 쪽을 순례자를 위해 내어준 곳으로 이부자리는 물론 샤워에 세탁까지 할 수 있는 젠콘야도다. 시설이 좀 낡고,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래저래 사건사고도 많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순례자들에겐 감사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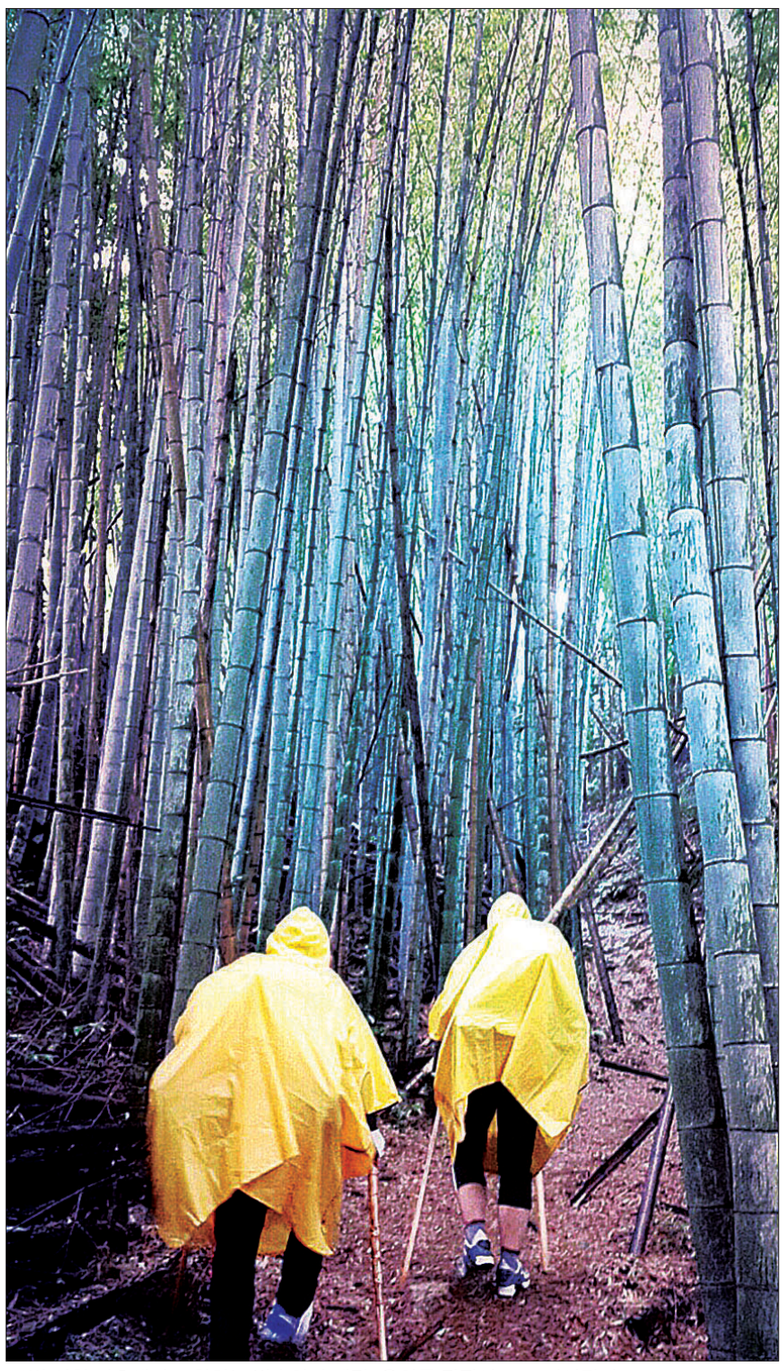
혹시 사장님께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너무 이른 시간인지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다. 젠콘야도로 올라가보니 전날 순례자가 묵었는지 감사 문구가 쓰인 오사메후다가 테이블에 있었다. 휘휘 둘러보며 잠시 추억에 빠진다.

2011년 첫 순례 때는 사장님이 당신네 택시를 태워줘 토쿠시마의 야경을 보러 전망대에 갔던 기억이 있고, 4번째 순례 때엔 특별히 이틀을 연박한 적도 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되어 간다. 해가 더 높게 뜨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한다. 다시 배낭을 둘러메고 걷기 시작한다.

토쿠시마 시내 한가운데 낮게 솟은 비잔(眉山, 290m)의 옆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지죠고에(地藏越) 고갯길은 겨우 140m 높이의 언덕이지만 그 경사가 상당하다. 이른 아침인데도 비지땀을 흘리며 정상에 도착하니 작은 지장보살상이 모셔져있다. 지장보살 앞에 잠시 손을 모으고 고개를 내려간다.

새벽에 내린 비로 가뜩이나 급경사의 고갯길이 더 위험했다. 젖은 바위를 잘못 디뎌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지장보살의 가피려니 생각한다. 작은 하천을 따라 내려가다 다리를 건너 국도로 합류한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지긋지긋한 길이다.

4개현에 걸친 순례 코스에
각각 1곳 있는 칸쇼지 도량
순례 의도 불순·악업 많은지
불보살·대사가 순례자 점검
바른 마음으로 순례하란 경책



19번 사찰 다츠에지로 향하는 빗속의 순례길. 우의를 뒤집어 쓰고 나아간다.

거의 3km가까이 되는 직선 아스팔트길. 그렇다고 도로 주변에 볼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드문드문 식당이나 편의점이 보이지만 하필이면 다 도로를 건너서 있다. 그나마 고갯길을 넘어와서 이징그러운 길을 3km만 걷는다. 시내를 통과해서 나오면 근 5km의 살풍경한 길을 걷게 된다.

낑낑대며 국도를 지나 야트막한 산길을 걸으니 온잔지 주차장으로 길이 연결된다. 무거운 배낭은 잠시 벤치에 아무렇게나 풀어두고 본당으로 향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힘들다고 배낭을 아무 곳에나 풀어두는 건 꽤나 위험한 짓이었다.

온잔지의 이야기는 앞서서 간단히 말한바 있다. 시코쿠의 여러 사찰들 가운데 효행에 과한 설화가 전해오는 절이다. 본당에 가니 보시함 옆에 작은 상자가 있다. 공양미를 올리는 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중세에 시코쿠 88개소를 도는 순례자들 중엔 쌀을 올리는 순례자들도 있었다. 당시엔 쌀이 화폐처럼 쓰였으니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현대에도 쌀을 가져와서 올리는 이들이 종종 보인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절에서 공양미를 사서 올리는 문화가 없어 집에서 쌀을 가져오는데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끽해야 한 두 줌의 백미. 잘은 모르겠지만 온잔지에 이런 상자가 별도로 있는걸 보니 여긴 또 공양미를 올리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납경을 받고서 시간을 확인해본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다음 사찰 다츠에지(立江寺)까지는 4km. 도보로 한 시간 남짓이다. 그냥 여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한다.

배낭 깊숙이 넣어둔 미숫가루를 꺼내선 발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어 손으로 반죽한다. 물에 풀어 마시기보다 그래도 고체를 먹기 위해 미숫가루 반죽을 먹는다. 티베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짬빠 먹는 방법을 흉내 낸 것이다. 반찬으론 말린 살구에 생강편. 처음 순례 왔을 땐 오직 미숫가루뿐이었다.

이리 먹어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난다. 일본 순례자들처럼 편의점이나 슈퍼를 찾아 순례길에서 멀리 떨어질 일도 없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식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

다만 문제는 짐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 예전에 나를 따라 걷던 친구는 너무 힘들어 들판에 미숫가루를 다 던져버린 일도 있다. 또 함께 순례한 적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은 “업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하나하나 까먹으니 참말 업장이 소멸되는 느낌”이라 말하며 웃기도 했다.

참고로 일본에는 미숫가루가 드물다. 그나마 비슷한 게 핫타이코(はったい粉)라는 것이 있는데 쌀보리를 볶아 만든 가루다. 내가 사찰 한 켠에서 미숫가루를 먹다보면 대체 이게 뭐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나중에 시코쿠의 노인들에게 들으니 2차 세계대전 당시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점심을 때우고 다시 일어나 걷는다. 산문 앞으로 난 숲길을 빠져나와 시골길을 따라 걸어간다. 19번 절 직전에 새로 생긴 순례자 휴게소가 보였지만 그냥 지나쳐 걷기로 한다. 강을 건너 마을로 접어드니 19번 사찰의 지붕이 보였다. 산문에 들어서기 전에 조금 긴장하고서 들어간다. 이곳은 ‘칸소지(關所寺)’이기 때문이다.

‘칸소지’란 순례자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순례했는지, 순례 중에 악업을 지은 것은 없는지를 불보살과 쿠카이 대사에게 검사받는 절이다. 만약 악업이 무겁거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이 사찰이나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전한다. 이러한 칸소지는 4현에 각 1개소씩 있는데 다츠에지는 토쿠시마현의 칸소지다.

칸소지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전설도 전한다. 200여 년 전, 시마네현에 살던 오쿄(お京)라는 여인이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도망쳤다. 두 사람은 피신을 겸하여 시코쿠 순례에 나서 이곳까지 이르렀다. 오쿄가 다츠에지에 도착하여 범종을 치려고 하는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당목의 밧줄에 휘감겨 들었다. 이에 두 사람은 무고한 이를 죽인 것에 대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깊이 참회하여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찰을 참배했다. 그러나 대사당 옆의 작은 사당에 이야기의 전문이 새겨진 비석과 함께 오쿄의 머리칼이 휘감긴 밧줄이 모셔진 것을 보았을 땐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부터 칸소지들을 참배할 땐 조금 마음을 다잡고 참배를 하고 있다.

납경소에 들러 납경을 받으면서 스님과 이야기를 해본다.

“오면서 보니까 못 보던 휴게소가 생겼더군요.”

“아, 거기 말이죠. 원래는 암자 터였는데 그렇게 활용하게 됐어요.”

“아, 원래 사찰이었나요?”

“네, 거기가 전설의 오쿄가 살다가 죽은 암자에요. 오쿄가 참회하고서, 그곳에 암자를 지어 평생 순례자들에게 맞이하던 곳이었지요. 오래전부터 터만 남았는데 그렇게 순례자들을 위한 휴게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납경소 스님의 말로는 휴게소 안쪽에 감실을 두고, 오쿄의 위패를 모셔두었단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롭게 보인다. 오면서 ‘들려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긴 싫으니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묵는 곳은 사찰에서 4km 남짓 떨어진 젠콘야도. 사실 젠콘야도라기 보단 마을에서 과일을 출하할 때 쓰는 휴게소로 내어주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무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부자리와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한 시간가량 시골 마을을 따라가 도착한 휴게소.

문을 열어보니 낮의 열기가 꽉 찬 채로 갑갑하기 그지없다.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고, 모기향을 피워두곤 앞의 논두렁으로 나간다. 날은 어둑어둑 져가고 다른 순례자가 올 기미는 안 보인다. 순례자 노트를 보니 일주일 전에 딱 한 사람이 묵었다 간 모양이다. 여름철 순례라는 것은 참 사람 보기 힘든 고행길이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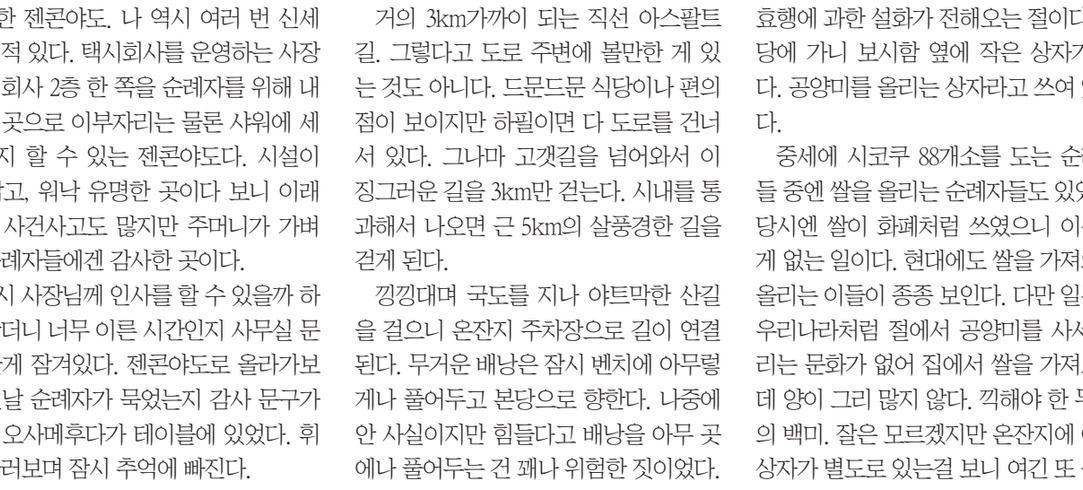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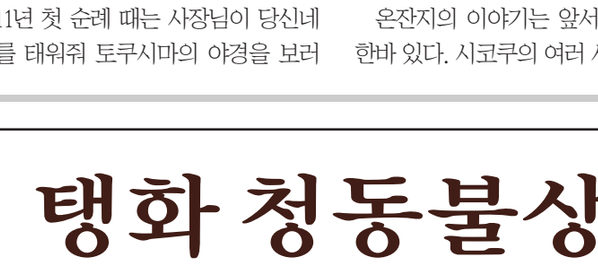
젠콘야도 ‘사카에 택시’. 택시회사가 운영한다.

- **배낭을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가 도난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주의하자.**
- **19번 다츠에지 앞의 작은 슈퍼를 빼고, 6km 가량을 더 걸어가야 편의점이 있다. 가급적 19번 앞에서 먹을 것을 사자.**
- **이번 순례기에 나온 젠콘야도 2곳은 여성 혼자 묵기엔 위험한 점이 있으니 주의하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21세기 새 자본주의 사상, '자비'가 근간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⑱ 자비의 시장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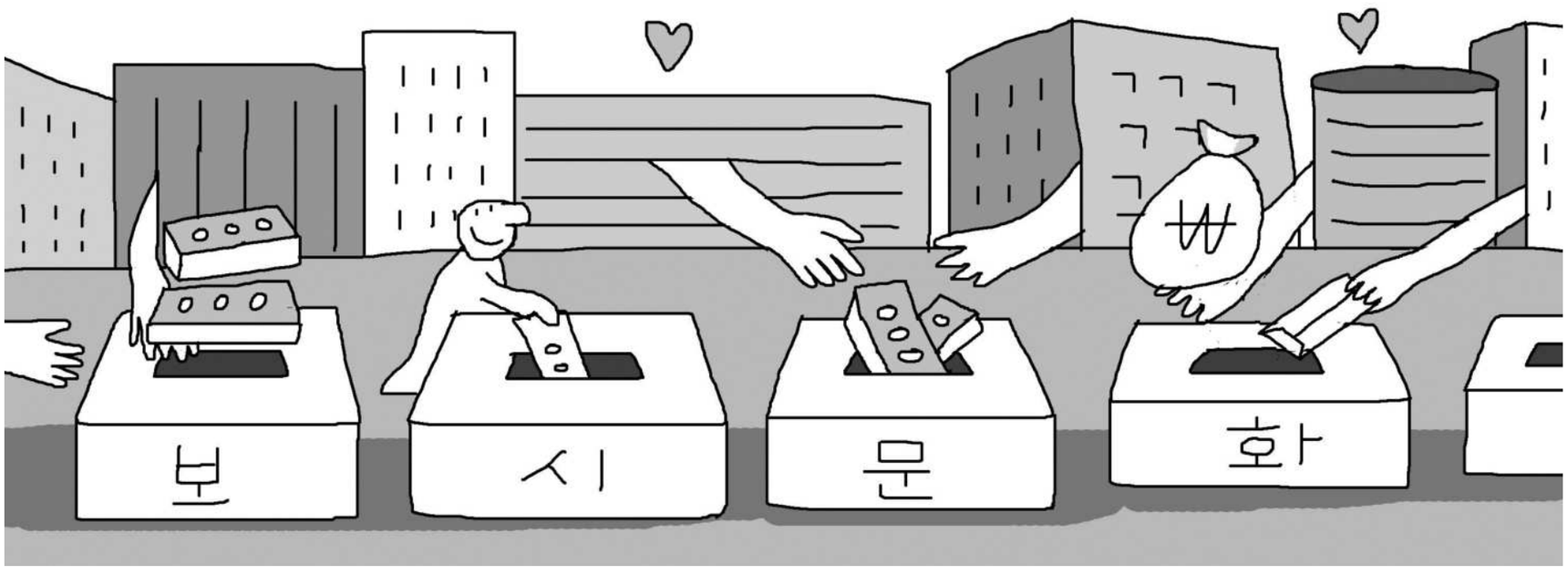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어떤 남학생이 고시공부를 하는 도중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 학생은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고시준비를 하다보니 잘 챙기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매일 적어도 몇 개의 문자는 보내야 되고 처음 만난 날,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은 잊지 않고 챙겨야 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기를 원했다. 선물이 명품이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준다고 생각했고 문자가 짧고 의례적이면 사랑이 식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쳐서 고시공부에 전념하고자 헤어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의 눈에는 그녀는 고시공부를 하는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 좁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달리는 못난 여자처럼 보인다. 나는 그의 여자친구가 이해가 되었다.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남자의 마음도 변할텐데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다. 내가 살면서 접한 못된 사람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항상 겉으로만 믿어 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는 게 없는 사람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기꾼이다. 부처님은 도움을 받았으면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고 계신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 마음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 기반에 '돈' 작용

돈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판단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다보니 세상도 더욱 더 돈에 의해 좌우된다. 봉급보다도 직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공무원을 선호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에 평생 봉급은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연금까지 있지 않은가? 만약 정년까지 보장되는 봉급의 총액이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봉급 액수보다 작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고액의 봉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거다. 요즘 젊은이들은 평생 봉급이라는 개념에 좌우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평생 봉급이 정해져 있지만 재벌 그룹에 취업하면 미래는 아주 불확실하다. 일찍 쫓겨나면 공무원의 평생 봉급에 못미치게 된다. 공무원의 연금과 봉급을 합친 평생 소득이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평생 소득에 못 미치면 공무원의 인기는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도 돈에 의해 좌우된다. 명문대학 출신 신랑감보다 이름 없는 대학출신의 빌딩 임대업자의 아들을 신랑감으로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다가 전세금을 마련하자 처가에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남성의 이야기도 있다. 능력이 있다면 봉급이나 재산으로 증명해야 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지출로써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꼭 나쁜 것일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가 거짓말이거나 위선이기 쉽더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다. 말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1억원이 눈에서 왔다 갔다하면 부모 형제 자매 사이도 안면몰수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사랑하는 만큼 지출하는 게 정직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다. 먼저 사랑만큼 지출하는 기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자.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한다니 지출로써 보여야 한다. 〈법구경〉은 "백년 동안 매달 천 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자기를 낳아 기르고 가르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공양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설한다. 〈중아함경〉은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필 때 자식에게 빚을 지지 않게 하며, 가진 재물을 즐거이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설한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재물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 모두가 '돈, 돈' 하면서도 막상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식의 지나치게 거룩한 윤리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시는 할지라도 보시 후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세금만 내면 될 것 아닌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자는 운동도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노력 이상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중산층과 서민은 가능하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어 이 험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내가 다 쓰고 가겠다는 자세보다는 자식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간의 경제관계는 이처럼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상호 유기적 관계 불교서 강조

〈장아함경〉은 부부사이에 관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 살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장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이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무슨 일에나 능란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처럼 부부간의 경제관계도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심지어 친구사이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재물이 다했을 때 물질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방일(放逸)하였을 때 그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설하고 있어 단순히 필요한 재물을 제공함으로써 도와주는 소극적 자세를 뛰어 넘어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사랑만큼 지출로써 보여주는 상호적 관계이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경제관이다.

물질로 마음 전하는 시대
상호관계 지키는 수단 '물질'
'자비'가 '공정'의 한계 보완
불교가 제도 미비점 개선 기여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 오늘날 시장자본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약육강식이고 강자에 의해 수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만약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자비로운 시장자본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비는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삶이 힘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경전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자비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돈으로 잘해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에게 돈으로 잘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자식과 배우자 이외에도,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람 이외에도 불쌍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지하철에서 불쌍한 사람이 구걸한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돕지 못한다. 이미 이러한 일은 개인차원의 일이라기 보다는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차원에서 해야하거나 부자가 보시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산, 소비, 분배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모든 경제관계가 자비에 기초해야 한다. 범죄행위를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자비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데도 경비절감을 위해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무자비하다. 자비에 기초한 경제관계는 그렇지 않은 경제관계에 비해 훨씬 더 연민과 배려에 기초하여야 한다. 1920년대 영국 귀족과 하인의 삶을 다룬 드라마 '다운튼애비'를 보면 귀족이 하인을 무조건 해고하지 않고 안쓰러워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인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중산층이 영국 하인보다 못하다는 다운튼애비 이코노미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논리에 의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기업이지만 해고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어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모두 고용하기로 하는 행위 등은 자비로운 기업의 사례이다.

공정사회 이루는 데 자비가 기여

자비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다. 가난한 사람은 시장이 공정하기만 해도 큰 도움을 받는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경전에서는 정법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정법국가란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시장자본주의와 정부를 말한다. 시장자본주의가 공정해도 한계가 있기에 자비로운 시장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자비는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중소기업인이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이미 한국경제의 가장 고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기업이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에게 독점계약을 체결한 뒤에 대량 주문을 내고 얼마 뒤에 주문량을 뚝 떨어뜨린다. 시설을 대거 확충했던 중소기업은 견디지 못하고 대기업에 백기 투항하며 중소기업의 특허는 대기업에게 넘어간다. 독점계약을 맺었기에 다른 대기업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자비로운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자비로운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존하는 시장을 통해 구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공존하는 시장이어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보시는 자비의 경제행위이다. 부자는 세금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 이상의 재산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지만 세금제도는 대부분 부자에게 관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부자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소수의 부자들의 재산을 나누면 전 세계 빈곤층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과 유리되어 살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질 기회조차 없다. 부자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불자의 몫이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한가위가 성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눈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불령동천과 한가위 만큼 넉넉한 불령산자락의 품에서
좋은 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날 짜 불기 2562(2018)년 9월 29일
(음 8월 20일) 토요일
■ 시 간 오후 3시
■ 장 소 청암사 자양전
■ 문 의 054)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

유혹에 빠진 아난을 구출하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㉞ 능엄경(楞嚴經) 1

〈능엄경〉은 사랑하는 제자 아난을 위한 가르침이다. 물론 처음 불교를 만나서 참다운 수행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 경의 원명(原名)은 〈대불정여래 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능엄경〉으로 줄여 부르며 한글대장경 173책 〈수능엄경〉에 실려있다. 한국인이 애송하는 경전이라 강의록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송찬우거사의 강론을 좋아한다. 읽다가 보면 번쩍이는 깨침이 눈 끝으로 들어와 마음을 새겨져 실천의지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여름 난생처음 만난 더위 속에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다. 더위 때문에 편히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수행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술에 걸려 음욕의 늪에 빠지는 상황은 등골이 서늘해지니 이게 바로 납량경전이 아닌가 싶다.

〈능엄경〉에서 아난은 부처님을 따라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법문은 언제나 들었지만 자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했다. 시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느라 언제나 듣는 것에 만족하고 이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런 아난에게 '아난, 마등가녀의 유혹에 빠지다'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부처님은 즉각 아난구출작전을 통해 구해낸 다음 다시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실천수행을 일러주었다.

이 사건은 출가자 전원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문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이런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못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아난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을 실천수행의 길로 이끈 멋진 경전이 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이 여름안거를 마치고 3일에 걸쳐 안거 중에 일어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경책하는 자자일에 대중을 위하여 미증유의 법문을 설하셨다. 법회를 마치자 빠세다닉왕이 부왕의 기일에 천도재를 베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왕궁으로 초청한다. 사위성의 모든 이들도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다 왕궁으로 모여들었다.

그 때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은 멀리 공양청을 받고 1박2일간 다녀오고 있었다. 보통은 공양청을 받으러 갈 때는 행동거지를 근엄하도록 만들어주는 상좌스님과 잘못된 실수를 방지해 주는 궤범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데 어쩐 일인지 그 날은 아난이 홀로 떠났던 것이다. 아난이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부처님과 대중들이 모두 공양과 제를 받으러 떠났기 때문에 공양거리도 없고 스님들도 없었다. 아난은 발우를 들고 탁발을 나오며 생각했다.

'오늘 처음으로 불자가 되어 첫 공양을 올리는 신도를 만나면 그의 신분이나 빈부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아난의 고요하고 정갈한 자태로 탁발하는 모습에 반한 아가씨 하나가 어머니인 마등가에게 달려가 저 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마등가는 부처님의 제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며 반대하자 딸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딸을 살리려고 마등가는 자신의 전공인 주문, 사비가라선범천주로 아난을 홀렸다.

일촉즉발, 아난의 운명이 위급한 순간, 부처님이 아시고 빠세다닉왕가의 천도재를 마치고 아난을 구하기 위해 설법하지 않고 바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다. 법문을 듣지 못한 왕과 함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을 따라 왔다. 그 때 부처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수리에서 모든 보배로 장엄하여 두려움 없는 광명을 놓으셨다. 그 광명 속에선 천 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보배연꽃이 출현하더니 연꽃 속에서 화신불이 등장하여 능엄주를 설하였다. 부처님은 문수사리보살에게 명령하여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음실에 빠진 아난을 구하라고 하셨다. 문수사리보살이 즉시 가서 염불하자, 마등가가 행한 악한 주문은 순간 힘을 잃어버렸다. 문수사리보살은 아난과 마등가의 딸을 함께 데리고 왔다. 아난은 부처님을 뵙자 엎드려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 부처님께 항상 들어 온 삼관법문(三觀法門)을 수행하지 않아 도력을 이루지 못해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마군의 세력에 갇히고 나서야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수행의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애욕의 번뇌는 삼관수행인 사마타, 삼마, 선나가 아니면 녹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난은 부처님께 삼관법문을 수행하는 최초방편문을 청하였다. 애욕을 끊는 가르침, 능엄의 가치는 청정계율이이며, 음욕을 끊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르침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무료급식으로 마음부자 되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㉝ 참부자의 의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설한 무료급식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종종 잡지사나 방송사 등에서 취재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우리 복지법인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 닦는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지, 봉사단체로서의 무료 급식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체로서 외부 지원을 받아 자선 사업하는 것이 어째서 나쁘다는 말입니까?"

"단체로서 외부지원을 받아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단체를 운영하려면 회비가 있어야 하고 회칙이 있어야 하는데, 회비를 내라하고 회칙을 지키라 하는 단체의 정신은 '마음 닦는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닦는 무료 급식이기에 다른 자선사업 단체에서 행하는 자선 급식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요 물론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닦으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돈을 내며, 무보수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때마다 '무료 급식 잘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원 하자'고 원(願)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발원이 통하였는지 여기저기서 물질적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봉사원이 부족할 때에도 봉사원을 구하러 다니기보다는, '많은 봉사원들이 즐겁게 이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여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원한다'고 원을 세웠으며, 이렇게 원을 세우면 봉사자들이 꾸준히 보충되고는 하였습니다.

봉사원 중에는 불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경한다는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의 무료 급식 수행으로, 나는 인색하고 성 잘내는 마음을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큰 부자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조금이라도 베푸는 기쁨이 더욱 큰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주는 것이 손해요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잘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듯 내 마음속의 거지 마음과 궁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나는 만년 월급쟁이의 가난한 용심(用心)에서 벗어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부자라고 하느냐?" "그대는 부자의 표준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단 한 푼도 베풀지 않는다면 부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비록 물질적 재산은 적지만, 정신적 물질적으로 베푼 양을 따져 본다면 큰 부자 반열에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는 비로소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현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였고, 오히려 항상 어떻게 더 줄까를 생각하는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신심명(信心銘)과 '이 뭣고'

중국 수대(隨代) 선승인 삼조(三祖) 승찬 대사는 젊은 시절 풍질 문등병에 걸려 천형(天刑)으로 믿었으며, 그 죄를 참회키 위해 이조(二祖) 혜가(慧可)를 찾아갔다.

"제자의 몸이 풍질에 걸렸습니다. 청하건데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죄를 찾아온다면 자네를 참회시켜 주겠네"

승찬이 묵묵히 있다가,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사왈 "내가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 마쳤다.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살아야 하느니라"하시고, "그대는 나의 보배이니, 이름을 승찬(僧璨)(승가의 옥구슬)이라 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깨달음의 본체인 정법안장(政法眼藏)과 달마대사께서 믿음의 표시로 주신 가사를 주노라 하시며 '본래연유지(本來緣有地) 인지종화생(因地種華生) 본래무유종(本來無有種) 화역부증생(華亦不曾生)'이라 했다. 이를 풀이하면 "본래 땅이 있음을 인연(因緣)하여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을 피우나 본래 씨앗이 있지 않았다면 꽃도 또한 일찍이 피지 않았으리"고 하시며 법을 전했다.

우리의 자성번뇌도 번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미(迷)해서 뿌리없이 잠시 일었다가 살아나는 조작(造作)인 것이며, 생사 또한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뜬 구름같은 것이라 진여실상(眞如實相)에는 없는 것이다.

> **"간택(揀擇)이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고 싫은 것이 한 생각일 뿐, 그 생각이 없으면 자연히 따라서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낭야각 선사에게 어느날 재상이 편지로 "신심명은 불교의 근본 골자로서 지극한 보배입니다. 이 글에 대해 자세한 주해(註解)를 내려 주십시오"하고 부탁하니, 답하길 "지도무난(至道無難) 유념간택(唯嫌揀擇) 단막증애(但莫憎愛)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 했다. 즉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힘 없이 뚫려 훤하게 되리라"는 첫 구절만 크게 쓰시고, 나머지 뒷 구절은 모두 조그맣게 써서 주해를 붙여 주었다.

이것이 신신명에 대한 천고(千古)의 명 주해(註解)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되었다. 간택(揀擇)이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고 싫은 것이 한 생각일 뿐, 생각이 없으면 자연히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다. 한 생각 망상, 시시분별의 주인공인 아(我)라는 실체없는 에고의 소멸이 지도(至道)이며, 이때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 반야지혜의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유념간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증애심(憎愛心)이다. 이것만 완전히 버리면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호리유차(毫釐有差)면 천지현격(天地懸隔)이며, 욕득현전(欲得現前)이면 막존순역(莫存順逆)"이라고 했다. 즉 털 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서 벗어나라. '따름'과 '거슬림'을 버리라는 것은 상대법으로, 따른다 함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슬린다 함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즉 한 생각이 주객전도 되어 주인노릇 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다. 나의 간택함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진행됨을 알게 된다면, 간택을 뒤로 하고 모두가 지극한 도(道)에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전부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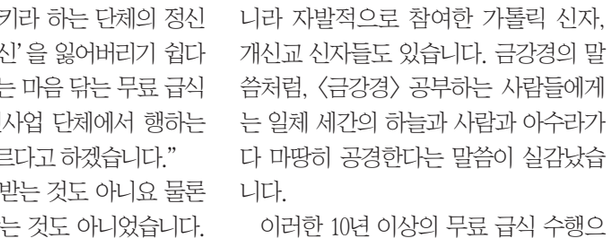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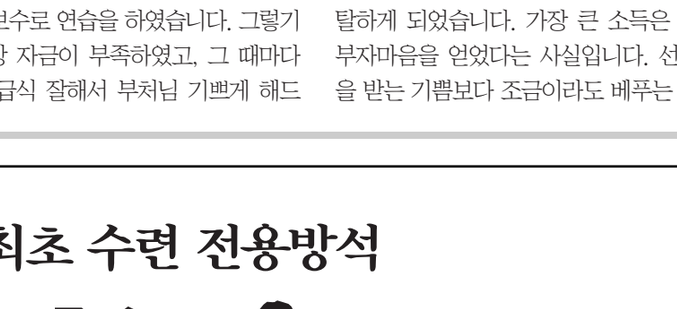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슬픈 자화상에 보내는 위로"

2018 화엄음악제, 3일간 일정 마쳐

영성음악회와 영산대재, 불교문화체험 등 호남최대의 불교음악제인 '2018 화엄음악제'가 구례 화엄사서 9월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음악제는 첫날 선다회의 다례의식을 시작으로 오마르 베나실라&정현의 연주공연, 스페인 전통음악 나옘의 영적공연, 권송희의 판소리 랩이 펼쳐졌다. 이튿날은 국보 제301호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을 복원 모사한 12m 크기의 탱화를 괘불대에 달고 어산어장 인묵스님 등이 봉행한 화엄사영산괘불대재와 노영심, 엘로이즈 진, 김유나 등 다양한 예술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화엄콘서트가 화려하게 열렸다.

마지막 날인 16일은 정현, 선다회의 차훈명상, 김대규(건축가), 최상을&신경아의 '세상의 끝에서 들려주는 음악이야기'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영성은 쉬운 듯 어렵고, 가깝지만 멀리 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라며 "이번 화엄음악제의 주제는 진혼이다. 진혼은 망자의 위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위로"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중과 나눈 불복장 가치

용화사, 삼존불 복장 및 점안법회

부처님 복장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처님 점안법회가 열렸다.

태고종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9월 16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 불복장(佛服裝)의 대가였던 묵담 스님(1896~1981)에게 직접 전수받은 수진 스님의 삼존불 복장 및 점안행사 시연을 펼쳤다. 점안법회에는 금강선원 총채 활안 스님, 박기정 신도회장을 비롯해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년 만에 다시 개금과 복장을 진행한 삼존불 점안을 축하했다.

수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용화사 부처님은 묵담스님께서 50년 전 전주 관음선원에서 여법하게 복장하시어 담양까지 이운해 모셔왔다"며 "불복장은 황금보자기에 다섯 개의 보배병을 넣어 부처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의식이다. 묵담 스님께서는 불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 전승하기를 유촉하셨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화가 이어준 소통 세대 잇는 매개되길"



Interview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복지관 내 자체 상영회서 시작
세대불문 노인영화제로 발돋움
영화제작 · 도슨트 기반 마련해
어르신 지속적 참여 기회 제공

"11번째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 10년을 기반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꾸렸습니다. 세대 간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초창기와 달리,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의 시도는 다양해지고 참여분야는 세분화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화제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이하 SISFF) 개막을 앞두고 9월 13일 트레일러 영상과 본선 진출작이 공개됐다. 청년 · 노인감독 부문으로 나눠 전국공모를 받은 출품작들은 최종 심사를 거쳐 추후 시상한다. 6회부터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SISFF의 기원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들의 정보화교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인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실시한 미디어교육은 영화제작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실습한 작품들을 소규모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관람한 것이 2008년 제1회 SISFF까지 이르렀다. 2013년부터는 기존 교육을 체계화해 '영화학교'로 명명해 운영해오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땐 어르신들이 1인 감독으로 다큐멘터리밖에 못 찍었죠. 하지만 지금은 극 영화도 거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출, 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음악감독까지 진출하겠다며 영화음악 관련 교육을 센터에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SISFF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정은 무궁무진합니다."

청년감독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11회 SISFF 출품현황에 따르면, 총 203작품 가운데 청년감독 157개, 노인감독 46개로 집계됐다. 2회부터 생긴 청년부문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역대 최다 참여로 노인 공모량의 3배를 돌파했다. 이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의 힘은 굉장해요. 영화를 매개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노인 외에도 미처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인문제를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은 관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작 이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상영이 끝나면 출품작들은 순회상영회에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재)완주문화재단을 비롯,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업,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곳으로 '찾아가는 SISFF'로 이어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영화 도슨트 어르신들을 양성, 관련 교육이수자들이 직접 순회상영회서 해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영화제의 컨셉은 '있다, 잇다'로, '노인이 있다, 세대를 잇다' '영화가 있다, 세계를 잇다' 등 여러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올해 트레일러 영상은 최초로 외국인 감독의 시선으로 연출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적보다 봉사 매진한 귀감"

진안 마이산 탑사, 9월 17일
청소년 29명에게 갑룡장학금
故이갑룡 거사 불심 기리며
25년째 인재불사 모범 보여



갑룡장학금 대상자와 장학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며 장학금을 전달한지 25년, 올해에도 29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전달됐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9월 17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도홍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각 지역단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갑룡 장학회는 봉사와 선행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해 모범이 되는 학생 29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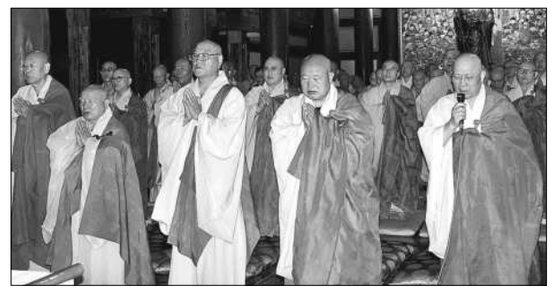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밝은 진안과 희망을 위해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성적보다는 자원봉사에 힘쓰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적은 액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성가연, 박아름(진안여중2) 학생은 "몇 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진성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니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늘의 고마움을 나눔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갑룡장학회는 오로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에서 30년간 탑을 쌓은 이갑룡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학생들의 학업 성적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선발해 격려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산 대종사 가르침 선양

경주 불국사, 21주기 추모다례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1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14일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서 스님 "원력을 세워 용맹정진해야 한다는 당부를 다시 깊이 새겨 수행자의 청빈을 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 오백나한 100일기도

9월 16일 입재… 신도회 1주년 법회도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9월 16일 오백나한전 100일 기도입재 및 신도회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회주 명성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진광 스님은 "공양의 의미는 각자의 공덕을 쌓기 위한 것이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대중공양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13회 천태예술제 성료

창작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선봬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9월 15일 서울 KBS홀에서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개최했다. 제13회 천태예술제는 새롭게 창작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29곡(서곡포함) 중 11곡을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이라는 주제 아래 연주했다. 박재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찬란한 가야불교, 孝 정신 되새긴다

가야문화진흥원, 10월 5~7일 가야孝문화축제

찬란한 가야불교문화를 꽃 피웠던 김해에서 효 사상을 강조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10월 5~7일 김해 수릉원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가야' '문화' '효' 세 가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교 수행뿐 아니라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가야 테마는 5일 오후 4시 국악공연에 이어 김수로왕과 허황후, 장유화상의 추모다례재를 올리는 식전행사로 문을 연다. 개회식은 오후 6시이며 통일을 주제로 힐링멘토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 이어진다. 이후 김영임 명창의 특별공연과 가을 음악을 주제로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문화 테마는 6일 오전 10시 제1회 가야청소년 국악·민속 경연대회로 시작해 퓨전음악공연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5시 가야문화중흥을 기원하며 금강경 독송과 1080배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김해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80명이 대거 참여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김해 지역을 고려해 아시아 6개국 전통음식 축제도 연다.

효 테마는 7일 오전 10시 제1회 가야청소년 백일장 대회로 효 정신을 고취하고 김해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점심 공양이 이어진다. 오후 3시에는 제1회 가야 '극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불자들의 부모은중경 독송과 김준호와 손심심이 꾸미는 효콘서트 및 버꾸춤이 이어진다. 체험 부스에서는 △〈부모은중경〉 서각 및 인경 체험 △붓글씨·달마도 그리기 △단주·소원 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가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제 선열들의 충정 새기자"

공주사암聯, 백제문화제 영산대재 성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작법을 하고 있다.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중하)는 9월 17일 공주 신관둔치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제64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공주시불자연합회가 진행을 맡은 행사에는 공주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정진석 국회의원,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등 불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영산대재는 식전행사 사물놀이 공연과 1부 법요식으로 문을 열었다. 사암연합회장 중하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제는 선열들의 충정을 배우고, 혼령들을 위로하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은 백제문화제 영산대재의 의의를 바로 알고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인간의 육신은 무상하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무상한 육신으로 족적을 새기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일 것"이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그 가르침이 법계에 살아있으며, 영산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부처님 제자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축사에서 "영산대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자리서 연합회는 이웃돕기 자비의 쌀 2,000kg을 공주시에 기탁했다.

2부는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대재가, 3부는 공주시사암연합회 합창단을 비롯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소원지 달기, 풍등 올리기, 방생체험 등 각종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이미경 충청지사장

佛畵의 매력, 강의서 '흠뻑' 빠지다

경상도 불화반 강좌 잇달아… 수시모집 인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화를 볼 때마다 신심이 난다는 A씨. 그는 얼마 전부터 지역사찰 불교대학 불화반에 들어가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고,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며 기뻐했다.

#불교를 믿진 않았지만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B씨. 불화반에 들어가 활동한지 1년이 지난 그는 현재 자신을 불자라고 소개한다.

경상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화반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준 높은 강의와 구체적인 실습 및 전시가 성공요인으로 작용, 지역포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양산과 대구 그리고 울산에서 불교회화특강 및 불화반 강좌가 열린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이하 경불대 불화반)은 '불화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 열고 있다. 경불대 불화반 강의는 본연(本然) 전연호 불모가 담당한다. 전연호 불모는 불화계 큰 거목이었던 불화장 제118호 석정(石鼎) 스님을 잇는 이수자이며,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상임고문, 본연불화연구소장으로 불화를 알리고 가르치는데 매진하고 있다.

경불대 불화반은 21년 전 시작됐다. 이후 졸업한 제자들이 전문불화연구를 위해 '불교미술본연문도회'를 결성하고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경불대 불화반과 함께 '불화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 중이다. 경불대 불교반은 기초부터 중급자까지 수업하며, 선배들이 함께 이끌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경불대 불화반에서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는 작가도 있다. 이문희, 조해종 불모가 '불교미술본연문도회' 출신이며 항상 경불대 불교반에서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울산·양산 등 각 지역
사찰과 박물관서 자리 마련
불화교실·일반인 문화특강
"불교회화 이해 높이는 기회"

전연호 불모는 "불화는 기도이며 수행이다. 수행의 일환으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에 노력과 재능이 진정한 불모로 성장시킨다"며 "수행과 함께 자신의 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 불모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053)792-1353



경상도에서 불화의 이해를 돕고, 불화를 직접 배우는 강좌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불교대학 불화반 수업 모습.

경남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불화반 강좌를 열고 수시모집 중이다. 강의는 실습과 이론으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통도사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불화반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개관한 1999년 4월 문을 열었다. 올해 19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조해종 불모가 강사로 활동한다. 조해종 불모는 전연호 작가를 사사했으며 석정(石鼎) 스님의 화법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은 "불화는 문화유산이면서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 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쉽고 아름답게 그려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불모의 길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의 습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과 인고를 감내하는 수행의 길"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10월 한 달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교회화 주제 '10월 목요일문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강은 불교회화의 기원, 종류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미경 문화재청 감정관이며 장소는 울산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0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10월 4일 강의는 9시 30분에 시작된다. 교육인원은 4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울산박물관은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4회의 특강을 통해 불교회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2)229-4731

"삼존불 조성 공덕, 지역사회 환원"

태학사, 청동삼존불 점안
10월 7일엔 산사음악회도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는 9월 15일 경내에서 석가모니불·약사여래불·관세음보살 청동삼존불 점안식 및 대웅전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전국사찰 주지스님들과 지역단체장,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행사는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일로 스님의 점안법문으로 시작됐다. 의식 집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이 맡았다. 이어 태학사의 발자취를 연구한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경과보고를 비롯해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과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종무원장 법훈 스님, 용인불교사암연합회 도원 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윤일규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삼존불 점안식(사진 왼쪽)과 대웅전 현판식(사진 오른쪽)을 봉행한 천안 태학사.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은 "석가보니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을 새로이 봉안하게 돼 모든 분들의 공덕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어두운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태학사는 신라 흥덕왕 때 진산조사가 절 뒤 100m 바위에 마애불(보물 제407호)을 조성하고, 해선암(海仙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그러다가 1931년 피폐한 해선암 절터 흔적과 덤불 속에서 마애불을 발견한 춘담 스님(1903~1994)은 해선암을 중창 불사해 1959년에 태학사로 개명했다.

태학사는 2대 회주 태광 스님 때 수행정진도량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3대 주지 법연 스님에 이르러서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도량으로 평가된다.

법연 스님은 동남경찰서 경승,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원장,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무료급식봉사단체 마하이타 대표, 풍세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편 태학사는 10월 7일 오후 2시 제2회 천안시민과 함께 하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태학사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기가수 진성이 출연하며, 지역 예술가들과 불자들 1천여 명이 산사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경 충청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열반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 화

- 작품성이 뛰어난 칠성 여래보살도,염라대왕도 필요하신 분 (조건부)
- 칠성여래보살도 : 조선말. 194cm×177cm
- 염라대왕도 : 중국산, 300여년전 작.95×185

010-5021-2391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범음범패 교육도량

각단예불 및 천수바라
육법공양무(작법)나비무
법고,송주북,정근북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 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수준높은 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부터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 박사 강성진 교수
010-4844-7002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

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 정치외교학
2. 경제학
3. 문화예술학
4. 철합,문학
5. 종교학
6. 체육학
7. 대체의학

상담 : 070-8844-203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특 수 치 방

(1)유방암 (2)편도암
(3)식도암 (4)갑상선암
암 질병에
고생하시는 불자님
성심껏 돌봐 드리겠습니다
010-4547-0023
카톡 ID : MRS774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 행 도 우 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들어서 이익이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법구경〉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 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직통: 이박사손전화)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찰전문이박사 원주이전
- 원주시 단계동 상가로 이전
- 스님.보살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 지나가실 때 방문해주세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10-7347-1010(직통:이박사)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원주이박사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거제시 대금산하 총부지 1100평
- 종교집회장 300평 허가득
- 토목공사,700평 완성되어있음
- 주택 34평,임법당, 삼존불 27평 소불700불,산신각,심야보일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수도시설
- 포교원, 전원주택 모두 가능함
- 가액 : 6억(은행 2억있음)

010-9113-0015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시내중심 대형 포교원
- 위치 : 울산광역시 범서읍 구영로132
- 포교소 : 110평 5층 상가 건물, 법회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구영리 신도시 10만 세대 밀집지역, 공원 옆, 대형 주차장 2곳, 4차선 도로 옆, 대형 탑마트(100m)
- 조건 :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십만원, 권리금 2천 5백만원

010-6525-2155/010-9808-456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35평,텃밭,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방2,주방,화장실,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5
- 대지 : 740평
- 건물 : 법당 12평, 요사채 50평, 무학대사 자연동굴 약 70평 (무속인 기도처)
- 불교용품 판매 가능
- 보증금 : 3천에 월세3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2078-959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지하철 근접
- 4층 건물 중 2층 34평
- 총무실1.침실. 화장실2.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 5년째 법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있음

010-8448-67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인접(도보 20분, 차량 +2~3분)
- 버스정류장(도보 1~2분)
- 주차10대이상, 텃밭, 뒷산
- 즉시법회 가능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해남읍에서 5분 거리
- 대지 : 1,500평 남짓
- 시설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등 모두 방 10칸
- 외부 : 부속사, 대형주차장 등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 모두 합 2억 9,500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바다와 10분 거리
- 대지 324평,건물40평2동,임법당
- 공업용, 농업용 전기공급
- 별도 산신각, 지장노천불, 공양간,창고2개,방6개, 넓은 거실
- 사찰 마르지 않는 우물 있음
- 인근 공기 맑고 조용
- 가액 : 1억 7천만원

010-2008-03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오백만원

전화:010-6241-8499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근교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전화상담

010-3828-9898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1438-316번지 만리 산하 (수덕사)
- 대지 : 90평~ 여분 30평
- 법당 30평 요사채60평, 산신각 10평 마당등등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580-5734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70평 (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실내화장실 2개)
- 2층 : 25평(법당, 상담실)
- 도시가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천, 월 80만원

010-7311-53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범천동
- 서면에서 차로 5분 절 마당에 주차
- 대지 : 300평+700평
- 법당, 산신각, 종각, 요사체
- 가액 : 10억
- 전/월세 가능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길52
- 위치 : 신협, 농협, 상가, 아파트 밀집(역세권)
- 공항 20분, 지하철, 시내버스, 열차 5분 거리
- 상가건물(168㎡) 2층 건물 전체(옥상 포함) 단독 사용
- 법당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신중, 소불 200불
- 탱화(철성, 산신, 용왕), 범종, 좌대법고(대1, 중1)
- 경명다라니 大1, 방송용무선앰프, LED전등교체
- 진견실:禪명상실, 편백황토방, 건강수련실
- 주차:농업지원센터 앞 주차시설 완벽
- 현)법회중:냉,온(방음시설) (광열비만 투자)
- 보증금:2천 월세(無) 시설4천8백만원

스님(직)010-4608-2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토 굴 임 대
- 위치 : 충남 청양군 소재 (공주시와 인접)
- 고속도로 IC에서 5분내 거리
- 법당 : 컨테이너 하우스 1동
- 요사 : 방사2, 실내주방, 해우소 약20평
- 법당 및 주방 집기일체 구비(시설비 무)
- 개인기도,수행하실 스님,비구니 스님 적합
- 계약 만료 후 양도 가능(협의 후)
- 전세가 : 2,000만원

문의 010-3977-2123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시장공영주차장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 장소 최적. 3층 건물 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 주방. 욕실. 방 1. 창고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 시설비1,000만원, 절충가
- 보살님.법사님.자리로도 명당

010-7583-1235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라이 라마, 불교 성문제 해결 앞장서나

'미투구루' 운동 외치는 성학대 피해자들
9월 14일 달라이 라마 면담… 도움 호소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불교계 성학대 문제에 묘수를 제시할 수 있을까. 티베트 불교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 ·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티베트 불교인 4명은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SNS상에서 '미투구루(metoo_guru)'란 해시태그를 달며 전 세계에 불교계 성학대 문제를 알리고 있는 이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에 앞서 온라인 서명 1300건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12명의 진술서를 달라이 라마에게 대표 제출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달라이 라마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달라이 라마가 실질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면담에 참여한 오인 비즐스마(Oane Bijlsma)는 "티베트 불교 전통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달라이 라마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는 11월 불교지도자모임에서 성적 · 육체적 · 정신적 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불교지도자 성범죄 드러나며
SNS '미투구루' 공감 확산돼
달라이라마도 공론화 움직임
"25년 전에 같은 문제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과 만남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달라이 라마는 네덜란드 방송 NOS와 인터뷰에서 "불교 지도자들의 성학대 문제를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이번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5년 전 누군가 내게 교단 내 성폭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서구 지역 라마



달라이 라마가 지난 9월 1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불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nbcnews

불교지도자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이 같이 언급했다는 것.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불교 지도자의 미투(Metoo)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캐나다의 유명 티베트 불교 지도자 사경 미팜 린포체(Shakhong Mipham Rinpoche)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샴발라커뮤니티(Shambala Community)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미팜 린포체는 "나로 인해 불교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추행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티베트 불교 지도자 쇼걀 린포체(Sogyal Rinpoche)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피해 여성 신도 8명의 고발에 따르면 소걀 린포체는 기혼 여성 신도뿐 아니라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해 왔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소걀 린포체는 자신이 설립한 수행 공동체 대표에서 물러났을 뿐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가톨릭 내 성직자들의 성학대 등을 알고도 대상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지 부다가야서 폭탄 추가 발견

지난 1월 폭탄테러 불발탄, 테러범 자백에 회수
"로힝야 학살에 대한 항의"
미비한 치안에 주민 불안



폭탄의 현장검증을 위해 설치장소로 이송중인 범인. 사진출처=비하르 포스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부다가야에서 폭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비하르 포스트' '걸프뉴스 인디아' '더 아시안' 등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인도현지 경찰은 15일 부다가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부다가야에서 있었던 연쇄폭탄테러의 범인 딜라왈 후사인이 심문과정에서 또 다른 폭탄의 소재지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폭탄은 당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된 곳과 동일한 공중화장실의 물탱크에 숨겨져 있었다.

지난 1월초 부다가야에서 열린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 세계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폭탄테러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인도경찰은 금속탐지기와 폭탄탐지견을 동원해 법회장 인근을 수색, 총 3개의 폭탄을 찾았다. 당시 체포된 범인은 "로힝야족 무슬림들을 미얀마 불교도들이 학살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폭탄을 설치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심문에서 범인은 "총 4개의 폭탄을 설치했다"고 자백, 즉각 폭탄처리반이 폭탄을 회수했다. 경찰 측은 "다행히 불발했지만 폭탄기능은 유효한 상태였다"며 "현재로써 더 이상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폭탄의 종류나 살상력 등에 대해선 추후 다시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줄였다.

부다가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월 당시 경찰은 '모든 상황은 경찰 통제 하에 있다'며 호언장담했다. 8개월이나 지나서 동일한 곳에서 불발탄을 찾아내는 게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냐"며 경찰을 비난했다.

부다가야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 폭탄테러로 2명의 스님을 포함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경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도와 근접한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 되면서 불교성지들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예고가 발표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락 · 포크송 · 댄스… '스님밴드' 인기몰이

락 밴드 하는 日스님들
새로운 포교방안 확산
목사밴드와 합동 공연도
"스님의 샤우팅 기상천외"



라이브 공연 중인 '중 밴드'의 스님들. 사진출처=유튜브

신도들이 절을 떠나가는 '사찰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포교방안이 시험되는 가운데, 스님들이 락밴드를 운영해 화제다. 지난 9월 10일 일본의 '니프티 뉴스'는 화제의 스님밴드들을 소개했다.

일본불교계 최초의 스님밴드는 그룹 명칭부터 '중 밴드(坊主バンド)'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로 결성 8주년을 맞는 이 밴드는 정토진종, 조동종, 진언종 등 다양한 종파의 스님 8인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스님들은 모두 불교용어에서 따온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

리더인 스님의 예명은 시키소쿠제오(色即是空男), 반야심경에서 따온 것이다. 스님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온다. 분위기가 고조돼 스테이지로 올라오는 분도 계신다"며 웃어 보였다.

공연에 사용하는 악기도 기타나 드럼뿐만 아니라 목탁이나 바라, 비파, 퉁소와 같은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법구를 사용하고, 무대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연기를 자욱하게 내는 등 신선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 밴드'가 유명해지자 다양한 스님 밴드들이 나타났다. 포크송 멜로디에 불경을 가사로 쓰는 'G · 푼다리카', 댄스뮤직에 염불을 함께하는 'Tariki Echo' 등의 밴드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밴드 'Tariki Echo'의 멤버 스님들은 본산에서 예불과 의식을 지도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계에서 밴드가 결성되자 라이벌인 '목사밴드'도 탄생했다. 멤버 전원이 목사인 '목사 ROCKS'는 스님밴드들과 함께 '목사ROCKS vs 스님밴드'라는 이름의 합동 라이브공연을 하는 등 종교를 초월한 음악적 교류를 보이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이 기타를 매고 불경을 샤우팅 하는 모습이 기상천외했다" "락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불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를 줄 몰랐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에서 봉사한 무슬림에 '갑론을박'

누리꾼 "종교 넘은 선행" vs "무슬림 원칙 배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여성이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슬람교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불릴 만큼 종교 통제가 심하다.

9월 18일(현지시간) 알바와바는 "사우디 여성이 뉴욕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선행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쉬햄 알 두하임(Sheham Al Duhaim). 그는 사원에서 봉사자 및 명상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쉬햄은 자신의 트위터에 불교 사원에서 일주일 간 머문 소감과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유목민 출신으로 어린 시절 염소와 양과 함께 살았다. 자연히 내 꿈은 농민이었다"며 "그런데 (미국으로 온 후)은행 계좌에 100달러밖에 없어 적은 돈으로 여행할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행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SNS에 급속히 확산되며 화제가 됐다. 그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기 때문.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며 게시물은 7000건 이상 공유됐다.

트위트 계정 @albandr5**는 그녀에게 "훌륭한 경험을 공유해줘 감사하다. 감명 받았다"고 리트윗했다. 또 다른 트위트 계정은 "그들의 종교를 뛰어 넘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쉬햄을 옹호했다.

반면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무슬림인 그녀가 사원에 거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

트위터 계정 @trlivhp20**는 "어떻게 무슬림이 절에서 봉사할 수 있냐"며 "나도 봉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한한다. 이것은 무슬림으로서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밝음(慧)의 지혜 일으키는 맑음(定)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4. 자비경선(慈悲鏡禪)

2) 소리 무상 관찰하기

지혜 일으키는 찰나삼매

찰나삼매는 한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알아차림 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를 찰나삼매라고 하고 심청정이라고 한다.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릴 때에도 찰나삼매를 체험할 수 있다.

말하자면 관찰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린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사라진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림도 나타나서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관찰대상과 알아차림은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이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삼매이며 심청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는 것을 관(觀)이라고 한다.

무분별의 거울 알아차리기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리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집중력이 늘어나며, 대상에 반응하여 흔들리는 것이 줄어든다. 전체를 듣는 힘이 생기고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있게 된다. 즉, 좋은 소리, 나쁜 소리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무분별 상태가 유지된다. 이때, 이 무분별의 마음거울이 생기고, 소리를 듣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소리를 보는 단계로 나아간다.

소리의 무상을 알아차리므로 현재 이 순간에 의식이 깨어난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음은 생멸하는 소리 중에도 생멸이 없음을 알게 하는 정견(正見)이 생긴다. 나아가 무상을 아는 지혜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함, 텅 빔, 불변(不變)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무분별 거울이 생기는 경우

첫째, 소리는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소리를 알아차리면 소리가 사라진다. 이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바로 무분별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이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알아차림을 통해 소리가 사라짐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질 때는 분별이 다시 일어난다. 유혹하는 강력한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반응하는 감정, 생각이 일어난다. 분별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소리가 무생무멸(無生無滅)이라는 이치를 알아차려 소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면[정견-지혜] 무분별의 거울이 된다. 이 단계는 바른 이치를 알고 있는 지혜가 동반된 알아차림이다. 따라서 유분별로 떨어질 위험이 없고 계속 무분별의 거울로 유지될 수 있다.

소리의 흔적 없음에 머무는 것이지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없애려고 하면 귀를 막으면 된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즉, 생각이 수행을 방해한다고 여기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으로 허무주의로 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소리 자체가 머묾이 없고, 머묾이 없는 그 자리는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알아차려 아는 것이 지혜이다. 머묾이 없는 그 자리는 힘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리가 없는 자리임을 알고 머무는 것이다. 즉, 소리가 생멸하면서 연속하는 과정 속에서 소리의 생멸이 자립함이 없는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소리의 자립이 없다는 것은 소리가 생멸하는 순간순간 자성(自性)이 없다는 뜻이다. 자성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소리는 생겼다 사라짐을 반복하면서도 무생무멸이다. 유(有)로서 존재하지 않아서 잡아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무로서도 소리가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길 조건이 생기면 소리가 일어난다.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3) 몸과 마음 휴식하기

호흡으로 의도 내려놓기

경선 중에 휴식이 필요할 때는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는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 빼고 허리를 쭉 펴준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하려고 하는 마음[의도]'을 내려놓고 멈추는 훈련 방법이다. 음악에도 쉼표가 아름다운 운율을 만들어 내듯이 매 순간 알아차림 함으로써 생활 속 긴장이 풀어지고 몸과 마음이 쉬어진다.

무상 알아차려 깨어나는 의식
생멸 없음 아는 正見 생겨나
생각 없애려 하면 집착하므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바라봐야

감정 · 생각에 대한 대처방법

하려고 하는 의욕과 의도를 내려놓고 멈추기 명상하는 중에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주객이 상대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바람 불고 눈 내리고 춥고 따뜻한 날씨같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은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힘(形成力)인 업(業)임을 알아차린다. 반응하여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면, 그 감정과 생각에 다른 감정과 생각들이 덧붙여지거나 의미 부여하게 되고, 다른 것과 결부되어 또 다른 감정과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연쇄반응이 일어남을 이해한다. 반응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무지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다른 것과 인연이 되어 덧붙여지고 의미 부여하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는 반응을 형성력인 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그냥 둔다. 또는 일어나더라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내버려두고 쉬기만 한다. 억누르고 제거하려고 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감정 또는 생각이 더욱 맹렬하게 올라오기 때문이다.

마음 내려놓는 호흡하기

마음 내려놓는 호흡 방법은 몸에 힘을 빼는 것이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바람의 요소(氣)가 생기면서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람의 요소는 마음과 불이(不二) 관계로써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을 내쉴 때 몸에 힘을 빼는 것이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물이 담긴 양동이의 수위가 아래로 차츰차츰 내려가듯이 상상한다. 즉, 정수리부터→목→어깨→가슴→허리→무릎→발 순서로 한다.

체험 현상과 효과 생각하기

몸이 가벼워지고 주위가 고요해진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주변이 고요해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오관(五官)의 문이 모두 열리는 체험, 보이고 들리는 사물과 하나임을 체험, 나아가 상호의존으로 하나임을 체험, 의식이 확장되는 체험이 일어난다.

차분한 마음 가지기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①의미 부여함을 멈추게 하고 ②다른 것과 결부시키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③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④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이라 함은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감정과 생각도 다른 조작 없이 가만히 두면 깨끗한 맑은 거울과 같이 됨을 뜻한다. 생각과 감정이 물에 비치는 사물과 같이 되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힘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정과 생각이 조절된다.

그런데 그냥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도 쉬는 것이다. 그 방법은 그냥 다음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그래서 맑음[定]이 생기면 거기서 밝음[慧]이 생긴다. 맑은 물에 비치는 현상들이 모두 환과 같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맑음[定]은 밝음이라는 지혜[慧]를 일으킨다.

마음이 쉴 때 드러나는 진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쉬지만, 마음 쉼이 익어지면 의도도 쉬게 된다. 의도 없는 마음 쉼 상태에서는 첫째, 주위가 고요하고 둘째, 보이는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들어오며 셋째, 의식이 한 공간을 이루어서 주객이 없고 안과 밖의 경계선이 없다. 넷째, 전체가 상호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섯째, 들리는 소리들이 무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 쉼 속에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선가귀감〉에서는 "일체 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자심(自心)으로 비춘다면 여염집 아낙들의 재잘거림도 다 평상의 정법을 속삭이는 것이며, 네거리 골목길에 뛰어 노는 아이들이 모두 깊은 실상(實相)을 드러내고, 새들의 지저귐이 모두 천기(天機)를 누설(漏洩)하며, 소 울음 닭소리가 모두 정법을 번역(飜譯)하는 것"이라고 설하는 경계로 나타난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대해 세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9년 1월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개인별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3. 급여내역 월 기본급(보시금) 및 종교활동비

서류제출방법

1. 우편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2. 팩스접수 : 051-955-2129
3.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전화상담 051-996-0308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죽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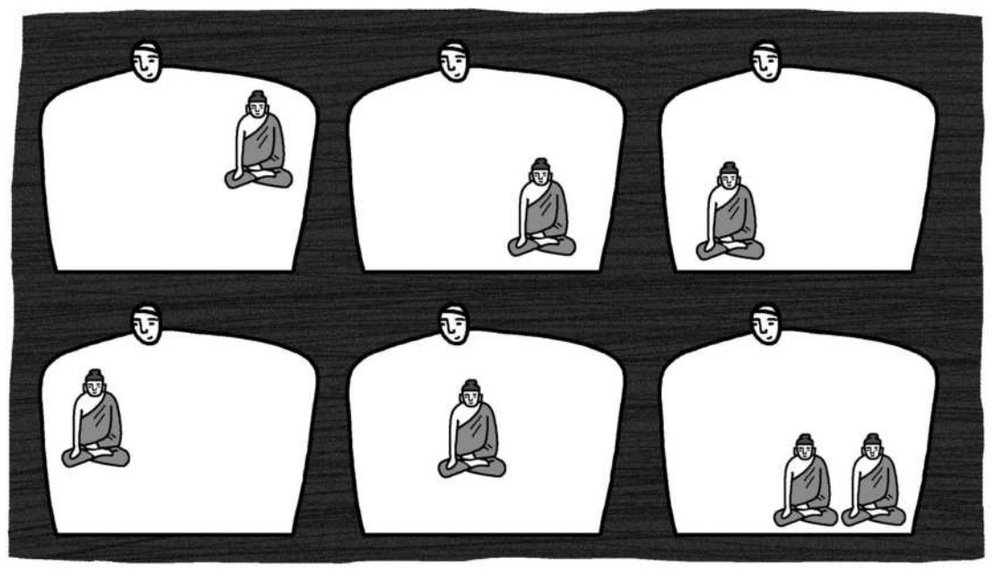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어!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지내 오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글쎄, 천도가 왜 생겼나 했더니…, 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는 대로 이 도리를 가르치시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는 대로 함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49년이라는 건 무슨 어느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49년이라 합시다. 그렇게 설법을 하고 그렇게 행으로 보여 주셨고, 말로 듣게 해 주셨고 귀가 뚫어져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잘이 조잘이 붙어 가지곤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몰라서 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잔뜩 그냥,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 집으로, 내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안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그 고덩어리가 전부, 인과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그냥 요만한 것들이 전부 화해서 큰 곤충으로 변해 가지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널려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중들이 귀찮게 무슨 천도야, 천도가. 만날 그냥 음식을 괴어 놓고 염불하고, 뭐 해 가지고 오면 만날 잔뜩 벌여 놓고선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디다. 이렇게 만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글쎄, 모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생전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글쎄,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그 배가 오겠습니까? 자기가 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한생각 끄덕하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자니 내 마음이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혼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 서 있다니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기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빠져 죽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 영혼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도 없죠.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홀랑 벗겨 놓을 수도 있고 홀랑 씌워 놓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그림 · 최주현

세 번째는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전부 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명들이나 은하계 혹성이든 별성이든 유성이든 행성이든 전부가 불 아닌 것이 없지요.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불성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율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율동을 하는 대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불바퀴로 배출이 된단 얘기죠. 왜냐하면 불바퀴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성도 전부 한두 군데 집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가 저기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자꾸자꾸 발전을 하고, 죽고 살고 발전하고 이렇게 행하고 돌아가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로 배출이 되느냐 하면 바로 불바퀴로 배출이 됩니다. 가만히 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불바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용도대로 끌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력을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데, 크면 큰 대로 끌어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끌어 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성이 별성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별성들이 바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율동을 하고 율동을 하면 바로 배출이 되고 에너지가 되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 속을, 불바퀴 소용돌이를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들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죽을까 봐 애쓴다는 그 점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두 늘 비하게 늘어서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1단계와 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2단계와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는 3단계가, 단계 없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 한생각을 돌리면 1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3단계도 없건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런 고덩어리를 짊어진 채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그저 만날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만약에 살아서 열반이라는, 이름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를 못 넘어선다면 우리는 죽어도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니까 여러분부터 믿어야 하고 여러분부터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남한테서 무엇을 받아야 하고 남한테서 무슨 행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쁘다 좋다,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벌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쁘고 좋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라고 이름만 불러 놓고 진짜 행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안 계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흙 하나, 물 한 컵 이것도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억만 분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분이자 그 한 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공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상이 구족함으로써 삼십이응신으로서 수많은 생명들에 응해 주십니다. 하다못해 뱀 새끼가 "아이고,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뱀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찰나에 응해 주시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이 한생각에 저 우주 법계를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이요, 귀가 될 것이요, 바로 한마음이 전부 그걸 두루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횡설수설, 어떠니저떠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체계 있게 하지 못하고 말이 서툴러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잘 참작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멋쟁이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목마르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마시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 옳을까, 안 마셔야 옳을까?' 이러고 마십니까? 똥이 급해 죽겠는데 '내가 똥을 눠야 옳은가, 안 눠야 옳은가?' 하고선 계산하고 똥을 눕니까?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들의 법이 없다면, 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석존이라 할지라도 나는 석존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존을 참 받들어 모시되 내 가죽 속에, 내 골수 속에 넣고 참으로…,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첫째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한마음' 하면, '원' 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 바로 문수요,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 화신이니라." 화신 말이에요. 여기 아프면 여기 만져 줬다가 저기 아프면 저기 만져 줬다가, 온통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보현신이자 화신이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니 바로 여러분이 마음 내는 거와 같습니다. 마음을 내야 움죽거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부처, 법신, 화신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러

☞ A18면으로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우리들의 법이 없다면, 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 A17면에서 계속

분이 계시는 한, 풀 한 포기가 있는 한, 물 한 모금이 있는 한 전부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옛날에는 나무를 동이 동이 이렇게 매서 쌓아 놨습니다. 산 밑에다가 치켜 쌓아 놓죠, 겨울에 때려고요. 봄에 때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동굴 속에 있다가 밤은 늦어지고 춥기는 하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부리에 차여서 발톱 반이 빠졌습니다.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리가 딴 자리가 없건만 내 욕심에, 뜨뜻하게 잘 욕심에 가다가 그랬구나.' 그 돌부리도 추상같이 호령을 하면서, 자리가 따로 어디 있기에 자리를 찾아가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썼습니다. 그러니 요런 돌덩어리 하나 부처 아닌 게 없고 법신 아닌 게 없고 화신 아닌 게 없습디다. 그러한데 어찌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론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술적인 이론으로써 해(害)를 보고, 정신계에 입각하지 못하고 나를 밝게 보지 못해서 올바르게 발전과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불나비 날아다니듯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자기를 먼저 믿고 물러서지 않고 찾는다면 찾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달마 대사께서도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했건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너부터 알라' 한 그 말 한마디가 이날까지 살아서 귀에 쟁쟁합니다. '너부터 알라' 한 소리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산에다가 송장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해골이 그냥 무더기 무더기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길 지나시다가 그 해골바가지를 보고 큰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이런 해골바가지에다가 큰절을 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 "얘야! 그런 소리 말아라.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또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거듭거듭 해 나왔느니라. 그러니 저 해골이 바로 우리 친척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그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이렇게 크나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마는 죽으면 바로 사대로 흩어져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그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은 다시 생산처로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모여서 다시 누구네 집의 자식이 또 됩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다른 구름하고 모이고 또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 식구로서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같이 모여서 살고 같이 놀다가, 한 철 놀다가 가는 친구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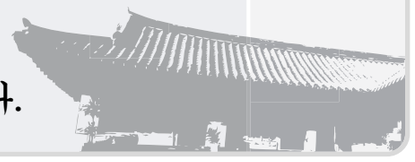
그런데 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쇠전에는 무쇠가 모여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모여 있고, 금방에는 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과일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놨습디다. 일체 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름과 한데 모였다가 다시 딴 구름하고 모일 때에 똑같은 차원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종지는 종지대로 놓고 접시는 접시대로 놓고 대접은 대접대로 놓듯이 그렇게 끼리끼리, 누가 모으려고 안 해도 끼리끼리 모이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모이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는 건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모이게 돼 있죠.

그러니 한 가족이 모인다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모입니다. "야, 너 이놈아! 왜 그러니? 공부를 왜 안 하니? 왜 그렇게 이탈을 해 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느냐?" 하고 온통 야단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저놈의 새끼, 나가서 죽지도 않아. 뭐 어째…." 이러거든요.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인연 따라서 서로 만난 인연들이죠.

그래서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 이렇게 모두 묶어서 같이 살자고, 같이 한 철 나자고, 우리 선방에 가서 한 철 나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 가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방에 가서 한 철 나듯이 나는 생활 속에서 그룻대로의 만남이니까 깡통끼리 모였으면, 깡통끼리 만났으면 깡통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 속상하고 그거 뭐, 말도 못하죠. 병고에 휘달리고 우환에 휘달리고 증오에 휘달리고 배신감 이런 데 또 휘달리고…. 요새 뭐, 한두 건이 아니죠. 회사에 나가서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데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남이 미운 짓을 하더라도 '아하! 내가 모자랐을 때 나였구나.' 하시고 말을 막 하걸랑 '아하, 내가 모자랐을 때, 그전에 내가 말을 막 하고 몰랐을 때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모든 거를 몰랐을 때 나로 본다면, 크면 큰 대로 나로 생각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이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라고 이름만 불러 놓고
진짜 행을 안하고 실험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항아리 속에 붙어 사는 벌레밖에 안 됩니다.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지만 사생의 뜻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무리들이 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벗어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다 줄줄이 붙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평화를 가져오려면 우주의 섭류를 알아야 하고 우주를 평화롭게 하려면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섭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함으로써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베풀 수 있는 자비가 근원에서 샘물처럼 솟아질 것이고 우리 국가의 역사도 빛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빚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거듭거듭 할 것이요, 세계가 평화롭도록 우리가 참 멋지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하기는 하나 지혜롭지 못해서, 불법을 탄압하고 모두 유교만 숭상했기 때문에 무심 도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한 번도 안으로 깊이 새겨 보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가 다르다, 저 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구라는 한 항아리에 붙어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를 뉘우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 깊은 속에 바로 자기 부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움죽거리면 법신이 되고, 몸이 움죽거리면 화신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데 계셔서, 내가 변소간에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바로 방에 계시고 들에 가면 들에 계시고 일을 할 때면 일하는 데 계십니다.

내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예전에 스물한 대여섯 됐을 때입니다. 서울에 백련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가 보고 여직껏 안 가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 봤을 때는 나한전도 있었고 대처 스님들이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멘트로다가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자리가 있고 저 건너편으로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 있는데 날더러 '너,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그냥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 하나가 돼 버리니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요, 사흘을 이슬을 맞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팔다리가 움죽거려지질 않습디다. 그러나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빨리 풀리더군요. 죄가 있어서 다리가 비틀어진 거는 더디지마는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아주 다리가 빨리 풀려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너고, 또 다리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고, 풀리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는 그저 움죽거리기만 했죠. 그랬지만 그때 '그게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아이 글쎄, 마음은 체가 없다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했잖습니까? 나를 깨달아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보다 깨달아 가지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자기의 작업이 아주 더 어렵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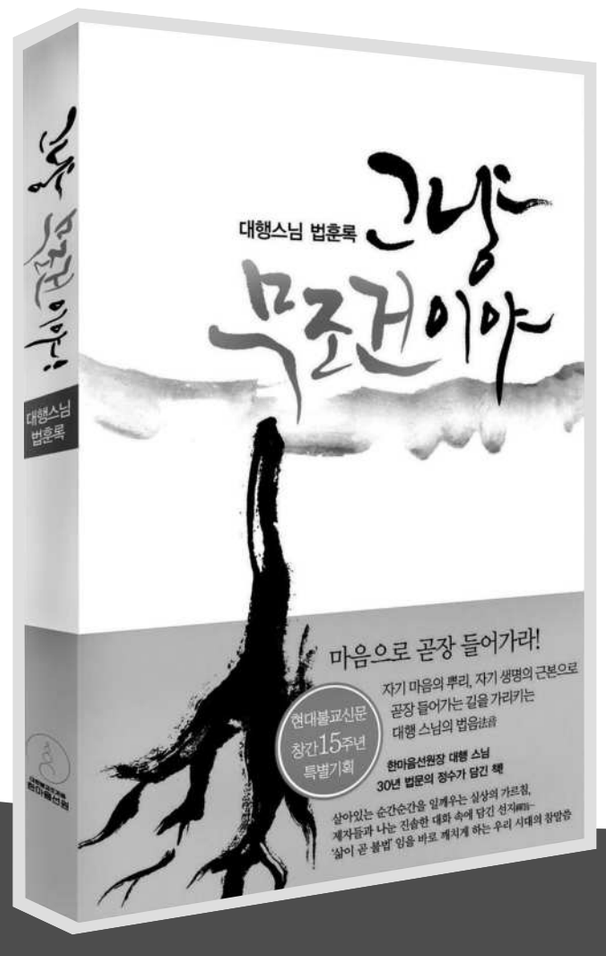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더한층 편안하게, 그냥 살아나가는 대로 사시려면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 놓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사시는 게 다 주인이 사는 거지 여러분 몸뚱이, 산 송장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 송장도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송장, 몸뚱이가 없으면요, 허망함 속에서 참나를 찾지 못하거든요.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열반, 구경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나는 시자로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거기 다 맡겨 놓고, 거기서 다 하는 것이니까.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보세요, 아프더라도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한마음 속에서 아프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해야죠.

그것이 과거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카세트란 말입니다. 카세트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솔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거든지 다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재입력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입력 하면 앞서 입력된 게 바로 없어짐으로써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바로 가환도 없어질 수 있고, 내 불편도 괴로움도 편안하게 아마 쉬어질 겁니다. 예전에 한암 스님께서 "3년만 눈 뜨고 푹 쉬어라." 아,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죽어야 너를 본다." 그래 가지고 죽으려고 차 밑에 말입니다, 밤에, 새벽같이 떠나는 차 밑에 몇 번이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섯 번, 일곱 번을 들어가도 못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었습디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저 여여하게 더 가려고 하지도 말고 더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내 한마음 주인공' 할 때, 한마음이라는 거는 왜 넣느냐 하면 이 자생중생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숫자가 많거든요. 의식들이 이 도리를 알면 한 생각이 수천 마음, 그 모습 없는 모습으로도 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렇게 광대무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처님 아님이 없는데 여러분 한 생각의 차이니까, 한 생각 차이에 여러분은 중생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님, 여러 큰 부처님들께서도 또 여러 작은 부처님들께서도 다 한마음으로 토론을 했으니 그쯤 아시고, 이제는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바로 실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관계 회복은 명상 수행으로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육방예경〉 관계 회복 가르침
부모 · 선생 · 배우자 · 친구 구분해
주요 타자와의 관계 성장 설명

발달 주기 '주요 타자' 살피면
현재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풀지 못한 응어리 명상통해 해소
관계 인연들 행복 기원하기를

최근 관계회복을 위한 명상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상처 제공자가 가까운 사람이라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견디기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자신도 바로 보고 관계도 바로 보게 한다.

관계를 바로 보게 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육방예경(六方禮經)〉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관계를 발달주기에 배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이 경전을 통해 살펴보면 독특하게 부모 영향기, 선생 영향기, 배우자 영향기, 친구 영향기로 나누고 있다. 해가 떠서 지는 것과 사계절의 변화를 은유한 동 · 남 · 서 · 북의 네 방위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는 삶을 돌아보게 하고 2차적으로는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발달시기와 그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보호 요인이자 때로는 위험 요인이기도 한 발달 주기별 '주요한 타자'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지금까지 인연 맺은 '주요한 타자들'과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되고 만약 그 중 누군가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관계 회복 명상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만약 어머니와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머니, 부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세요"라고 해보자. 그 당시의 어머니의 영상을 떠올려 펼친 손바닥 위에 놓고 그저 담담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다 보면 켜켜이 쌓였던 불편한 감정들이 마른 풀 불에 사라지듯, 용광로에 눈 녹듯 자취를 감추게 된다.

〈자애경〉을 보면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이 관계 회복 명상의 기반이다.

육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뺀 나머지 상하 방위는 선지식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맥락으로 보면 위쪽 방위는 발달을 통해 자기 본성을 회복한 사람을 만나 자신도 그와 같이 본래 자기를 회복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래 방위는 그 회복의 경험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깨침을 사회화하는 건강한 전승을 의미한다.

관계 회복 명상 과정 중에 명상을 통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참가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무엇이 조금 다를까"라는 '미라클 질문'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붓다로 살자'로 시작한 관계명상인데 그 취지에 맞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다. 질문에 보태어 붓다의 행동, 언어 그리고 생각을 써보게 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청정함을 표현하고 대부분 자신의 본성을 자각한다.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역할과 그에 맞는 명상법을 질문하면 기발한 발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관계 명상 방법들을 쏟아낸다.

예를 들어 "옆으로 걸으면서 하는 가재걷기명상으로 평등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라든가 "안아주기 명상으로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해야 합니다" 등등.

관계로 마음 불편한 이들이, 주요한 타자들을 상징하는 여섯 방위를 향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관계회복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머지않아 온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관계회복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社 說

총무원장 선거문화 혁신 기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마련된 이래 최초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 후보자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책토론회가 열린 사례는 있으나 이는 불교기자협회와 중앙신도회 등이 주최해 종단차원의 토론회는 아니었다. 따라서 종단이 주체적으로 종책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대중이 앞으로의 선거문화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종책토론회 개최에 후보자들이 합의하며 한 차례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토론회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다.

물론 이번 토론회가 대중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통질문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종책 실현 방안을 듣기 어려웠고, 후보자간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다. 분명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대중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계종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금권선거 · 흑색선전 · 매관매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진행돼왔다. 수행과 청빈, 화합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불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임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말하고,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종전에 가까워지는 시대다. 불교계도 시대변화를 읽고, 선거문화의 구태를 혁신하는 모습으로 대중에 다가가야만 한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대표 노사 문제 중 하나였던 쌍용차 문제도 종지부를 찍었다. 2007여 명의 구조조정으로 9년만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사측은 전원 복직 교섭을 타결했다. 9년이라는 시간동안 30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전원 복직 타결은 반가운 소식이다.

근 10년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은 조계종이다. 2009년 8월 당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해고자 가족과 면담 후 이웃종교계에 쌍용차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화쟁위원회, 불교계 시민단체 등이 불교적 방법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차원 지원을 약속하며 천도재, 사면 청원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종단 안에서도 노동문제를 전담할 노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에는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된다.

쌍용차 사태는 그간 무지했던 노동운동 분야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조계종의 노력은 불자들의 의식 변화에도 한 몫을 했다. 불교계 언론 보도를 보고 대한문 분향소를 찾아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로했다는 에피소드는 진실성 있는 불교운동이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미해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불교계 내부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내부 노동문제가 원만해야 불교계의 노동운동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비구니 스님을 왜 배제하는가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이 완료됐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과 예비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이를 통해 240명의 교구별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중앙종회의원까지 합쳐 총 318명의 선거인단이 꾸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비구니 스님들은 배제됐다. 교구 선거인단 명부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들은 240명 중 22명이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까지 합치면 32명, 10%에 달하는 수치다.

24개 교구 중 8곳(직할, 신흥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대흥사, 백양사)은 비구니 스님을 아예 한 명도 배정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어땠을까. 사실 대동소이하다. 지난 교구 선거인단에는 비구니 스님 24명이 이름을 올렸고, 34대 선거에서는 20명이었다. 전체 수치로는 10% 안팎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계종이 2008년부터 종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몇몇 논문에서 조계종 승려 수와 비구 · 비구니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평론〉 제68호에 수록된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에서 제시된 조계종 총무국의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의 총 승려 수는 1만3078명으로 이중 비구는 5972명, 비구니는 5501명이었다. 다시 말해 종단 승려 구성원 중 절반 가량인 42%가 비구니 스님이라는 이야기다.

일선 교육 · 포교 · 복지 현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비구 스님들의 활동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종무행정 부문으로 넘어오면 비구니 스님들은 배제된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비구 스님이 중요한 보직들에 당연한 듯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당연한 듯 행정과 선거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배제하는 문화가 과연 불교적인가. 어느 계율과 종헌 종법에도 '비구니 10% 선거인단 배정' 이야기는 없다.

기실 선거는 국민들의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종헌 제8조에는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 구성한다'고 했다. 이는 조계종은 종단 구성원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부중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부중은 종단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가진다. 간선제로 운영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에 비해 10%만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구 독식' 선거 풍토는 불교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스님들이 공히 내건 공약 중 하나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였다. 모두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약속했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에 비구니 스님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문제는 총무원장 선출 이후의 의지와 실천이다. 조계종이 진정 사부중으로 구성된 종단이라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시 '10% 비구니 선거인단' 기사를 작성하지 않길 바란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즉문즉설③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 혀끝에 면도날을 물고 있는 격이라고 정말 많이도 들었다.

그런데 **벼슬자리를 쫓는 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벼슬자리에 갈애하고 갈음을 느끼는 그들은 과연 출가인이 맞는가?**

군소종단 가릴 것 없이 역대 선거에 입후보 했던 주인공들의 프로필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선방 수행결사, ○○큰스님의 상좌이며, 크다는 절 주지에 ○○선원장이며, 어마어마한 직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이력이 되면 법력으로 신통부리는 도인이 되고도 남을 법한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서로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는 문중인데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판을 벌렸었다.

수행은 누가 뭐래도 나를 비우고 세상을 향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는 종파 관계없이 간화선이 유행이라 화두 탐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화두를 무엇으로 간절하게 잡았는지…?

역대 그들이 했었던 행위를 봐서는 앉고 일어서며 무슨 수행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부처님 말씀은 지은대로 받고 닦은데로 한다고 했다.

이럴 때 부처님 교지대로 마음 비우는 수련을 했다면 누가 뭐래도 그러한 자리는 사양했을 것이다.

三日修心 千載寶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지만

百年貪物 一朝塵
백년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네

그나마 불교계에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금번 선거는 공정선거를 확약했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어른들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큰 사찰이야 별 피해가 없겠지만 소납 같은 작은 사찰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의 특징은 전부 입만 살아 있다. 그래서 어느 선사가 지옥을 가 보니 입만 둥둥 떠 다니더라고… 얼마나 말들을 청산유수 같이 잘 하는지…

거기에 절집 경력자들인 고령화된 노보살님들이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 오로지 자기 절, 자기 스님이 최고라 한다.

오래 전에 정치판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전라도에 가서 자는 사람을 깨우면 눈을 뜨기도 전에 "김대중"하고 경상도에 가서 자는 이를 깨우면 그 역시 눈을 뜨기 전에 "박정희, 박근혜"하고 외친다. 인물 평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누구라고 외친다. 이것은 조폭에서나 있을 만한 것이지 정상인들의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사찰이 그렇다. 무조건 자기네 절 스님이 최고이고, 자기 스님이 신통 부리는 도인이고, 각종 병, 말기 암, 조현병, 희귀병 등은 기본으로 낫게 하고, 자기네 절 스님한테 무슨 원(願)이든 얘기하면 원(願) 성취가 다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난립을 하길래 현대불교신문에 수행을 통해 그러한 법력을 가진 이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멍석을 깔고 야단법석을 해 보자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다.

제발 유명한 스님네와 크고 작은 스님네가 출연할 수 있도록 큰 절 신도님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능력을 만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불교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수렁에 빠져있는데 말잔치는 하지 말고 이런 행사를 통한다면 불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면에 ○○욕은 많이도 먹고 있다. 금강경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하다고 한 것을 바른 공부 하는 이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업이 다 소멸되고 ○○에 태어난다고…

그러한 자리를 놓고 말 없는 정쟁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불교계 전 교단이 게임방법을 달리하면 어떨는지… 티벳 처럼 조그만 아이가 전생에 자기가 쓰던 물건이고 노리개라며 찾아낼 때 고승들이 증명법사가 되어 인준해 주는 그 장면을 출가인들은 다 알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쓰던 물건을 신통방통하게 찾아내는데 거기에 시시비비 붙을게 있는지… 말 그대로 신통이고 도력(법력)인데 역대 도전장을 던진 그들의 프로필이 그 정도 화려하면 도인도 벌써 도인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말로 하지 말고 도인답게 법력을 보이면 될 것인데 그런 수행력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도인이 있다면 닭 벼슬보다 못한 것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아예 수행말고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도 출가하신지 6년 만에 육신통을 얻고 난 뒤에 사바세계 중생 구제하기 위해 저잣거리를 다니면서 중생 구제를 하셨는데, 우리네 출가자들의 수행 년 수는 (전생을 모르겠고 이생을 보면) 6년 보다는 몇 배로 많은 세월을 공부, 수행했다고 하는데 육신통은 그렇다치고 그럼 몇 통이나 얻으셨는지?

이제 입은 다물고 득한바 얻은 것을 보여라! 얻은 것이 있다면 중생을 구제하고자 보여야 할 것이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입을 아예 봉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이고 그에 합당한 얘기를 차근차근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말장난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것이고,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질 것이다.

일부 명상 단체나 ○○세계 대전에서 공중부양이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이동한다는 그러한 것은 불보살의 권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가의 신통은 중생 구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 예로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 등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예로 외도를 하는 이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몇 살 먹은 남자,여자,머리스타일이 어떻고, 어떤 색깔 옷을 입고 등등… 조용히 얘기한다. 소문 안나게…

【 사례 ❸】 ○○노보살님

남양주에 사시는 노보살님께서 법회를 마치고 공양이 끝난 후 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가까이 마주앉자 "스님! 우리 손녀가 집 나간 지 며칠 됐는데요…" 하며 울면서 얘기한다. 노보살님은 매일 사경을 하시고, 일요일 마다 공부하고 법문 들으러 오시는 분이다.

"오늘 법회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서 (참고로 중2) 이 기도문에 적힌데로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문을 적어드리니 "스님! 그러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 5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그치지 마시고, 역정도 내지 마시고, 편하게 쉬게 하십시오." 했다.

저녁 7시 15분에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다. 정확하게 7시 5분에 손녀 딸이 들어왔다며 너무 기뻐 들뜬 목소리였다.

절대 오래된 신도라 할지라도 사업이 어떻고, 장사가 어떻고, 대학 합격이 어떻고, 승진, 취직, 부동산 등등… 이런 얘기는 절대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것도 신도님들 일신상 얘기 중에서 ○월 ○일에 어디 가지 말라고. 아니면 ○월 ○일에 손주, 아들, 딸 교통사고 나니 일체 바깥출입을 삼가라고 한다.

부처님 제자로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키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방편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경전)대로 바르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혹여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나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면 이내 없어짐을 알아야 한다.

공중부양과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이동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 그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설사 공중부양과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한들 **중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말로 시작해서 말잔치로 끝나는 그런 행사 하지 말고 아니면 불보살의 능력에 부합되는 조현병, 시한부 말기 암, 희귀병 환자를 병동에서 직접 데리고 와서 도인들 답게 도력(법력)으로 기도해 보라.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정신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 수련을 제대로 한 이가 있다면 잃어버린 정신줄을 찾아주면 된다.

불교는 정신수행이다. 이것을 마음 수련이라고도 한다. 정신을 도둑질 해 간 놈이 있다. 간화선, 위빠사나, 사마타 등… 제대로 **알아차림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관(觀)을 통해 순식간에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법력이 생기는데 그 법력으로 제거하면 될 것이다.** 수행한 이라면 아주 쉽고도 쉬운 것이다.

그래서 대형 사찰의 수장이나 ○○선원에 수장을 뽑을 때도 반드시 법력이 있는지 일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뽑아야 할 것이다. 이생에서 이력과 경력만을 보지 말고 **수행으로 얻은 법력을 확인해야 한다.**

무대 위에서 티벳 처럼 도력(법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인다면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드는 이 없을 테고, 사부대중 모두가 더 결집력을 높일 것이다.

* * *

이 글을 보고 격려와 일부 △△욕 등… 전화가 많이 온다. 신문에 전번이 노출된 이들이 전부 시한부 생으로 병원과 종교집단을 전전긍긍 하다 재산은 재산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파탄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지만 대개는 노출을 꺼리지만 이들은 지면에 올려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아직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가피(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들에게 알려서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질문하면 병원, 본인의 이름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명이라도 더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 크게는 바른 불자로서 부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광분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짜고 하는 등…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전국에 있는 그들에게 전번을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시차를 두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 조선 ○○사 사건》 등등을 통해 종교집단의 사기 허구성을 취재한 것도 잘 알고 있고, 본납자도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도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 까지는 심증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본 연등사는 불자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절을 창건하지 않았고, 절에 필요한 모든 가재도구는 길에서 주워서 쓰고 있고, 농사짓고, 공양주 두지 않고, 양말 등… 깁고 기우며 아나바다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글을 쓰면 말이 생길 것 같아 그만 쓰겠습니다.

모든 것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 불시에 누구든 와서 신분 밝히지 말고 확인하고 가십시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2018. 10. 7 (일) 오전 10시
장소	연등사 대웅전
전화	055-633-6555
참가자격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김○○	010-2526-4365
박○○	010-4807-6932
박○○	010-9707-4808
윤○○	010-6786-7495
선현	010-3143-5302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삼보회 인연 만다라 30년… 在家운동 '견인'



유억근 이사장은 1986년 소금회사인 '마하탑'을 설립하고 1987년 (사)한살림 생산자회원으로 가입해 사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 한살림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신안군 관광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1985년 현성 스님을 계사로 5계를 수지했으며, 1986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3년에는 법사 품수를 받았다. 2014년에는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1985년부터 삼보회 회원으로 재가불교 운동에 진력했다. 삼보법회 총무부장,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삼보회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현재는 임자도 화엄경전래 유적비 건립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2004년 자랑스런 전남인상, 2018년 초록섬마하탑 모범납세자 표창(광주지장국세청장) 등을 수상했다. 사진은 삼보정사에서 부인 이정심 씨와 함께 합장인사 하는 유억근 이사장.

道伴의 향기 유억근 (사)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가족

30년 신행 · 수행의 만다라

2017년 삼보회 8대 이사장 취임
7년 준비 행정고시 실패 후 좌절
마음 잡기 위해 부처님법 공부
부처님과 대화 힘든 시절 견뎌
삼보회 인연 맺고 포교사 취득
삼보회 이끌며 재가불교 전범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가는 사부대중이 이룬다. 출가하여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것도 귀한 불사이고, 속세의 시간을 살면서도 삼보를 마음에 담고 산다면 그 또한 귀한 불사다. 출가(出家)와 재가(在家), 모두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시절을 거슬러 오르면 여러 이름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대승경전 중에는 〈유마경〉이나 〈승만경〉 등 재가의 대중이 주인공인 경전이 있다. 이는 불교가 출가수행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닌, 재가의 신행과 수행을 통해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삭발염의는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법을 따르며 재가불자로서 성불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 우리 재가불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사)대한불교삼보회(이하 · 삼보회) 8대 이사장 유덕근 거사가 그이다.

33년 만다라의 시작, 삼보회

2017년 1월, 유덕근 이사장은 삼보회 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 이사장이 삼보회와 인연을 맺은 지 33년 만이었다. 유 이사장은 평 회원에서 시작해 교화부장, 총무이사, 이사장 권한대행 등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 이사장의 33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세월을 세는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유 이사장의 만다라이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의 33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 한 권의 경전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한 점의 만다라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 닿는다.

유 이사장은 1985년 삼보정사 법당에 첫 발을 디딘다. 그리고 삼보회 회원으로 가입한다. 유 이사장이 어려운 때였다.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힘겨운 시절이었다. 유 이사장이 7년 동안 준비하고 시도했던 행정고시를 포기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유 이사장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섰지만 새로운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유 이사장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였다.

"마음이 힘든 시절이었죠. 그 때, 부처님이 생각났어요. 어려서부터 보았던 집안의 불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사셨던 할머니도 그렇고, 마음이 갈 곳을 잃다보니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간 것 같아요."

유 이사장은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의 불가적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가의 인연 속에 있었다. 출가한 친구 덕분에 불가의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당연히 유 이사장의 마음 속을 들고 나는 것들엔 불가적 원소들이 많았다. 그런 유 이사장의 힘든 마음속에 찾아든 것 역시 그 원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선을 담았던 종이에서 생선의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향을 담았던 종이에선 향 내음이 나는 것이 당연했다.

유 이사장은 부처님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 그야말로 '발심'이었다. 비록 힘든 마음에서 비롯된 발심이었지만 그것은 진지하고 또 진지한 서원이었다. 초파일에 등 달러 가는 불교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싶었다. 그 발심의 첫 인연이 다름 아닌 '삼보회'였다. 그리고 삼보회 회원이 된 유 이사장은 곧바로 전국불교포교사협회 부설 포교사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이듬해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포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출가(出家)와 재가(在家)

지성불교의 산실로 정법구현과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해 온 삼보회는 1964년 4월 24일 덕산 이한상 거사(1917~1984)의 대한불교삼보장학회 설립으로 시작했다. 자비광명 불보, 무상진리 법보, 청정화합 승보인 삼보의 혜명을 받들어 1960년대 불교 부흥의 선각자였던 청담 · 성철 대종사를 비롯해 많은 대덕스님의 공덕과 백성욱 · 김동하 · 서돈각 · 홍정식 · 이종익 등 대석학들의 시대적 서원이 함께 했다. 이후 삼보학회, 삼보법회, (사)대한불교삼보회로 발전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8개 부속 기구를 두고 한국 재가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삼보회 산하의 8개 부속기구는 불교계 인재육성을 위한 삼보장학회, 부처님의 정법구현과 대중화를 위한 삼보법회, 어린이 불자 양성을 위한 연꽃어린이집, 불교 교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삼보여름불교대학, 정보화시대에 맞춘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선교쌍수를 위한 삼보선원, 불교의 전법과 홍포를 위한 삼보법사회, 수행정진 도량인 삼보정사를 두고 한국 재가불교 단체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삼보회 회원이 되고 법회에 참석해 보니 이곳에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큰스님들의 법문과 석학들의 강의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 이사장의 지난날을 보고 있자면 재가불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결사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을 구하고, 구한 법에 의지해 사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오랜 세월을 사는 것, 그것이 불교이고 결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출가자가 출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재가자가 재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면 오늘날의 갈등과 다툼은 없었을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만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출가자가 출가자로서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여법하고 원만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그 실천 하나 하지 못할 때, 세상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금원시기 조동종의 만송행수선사

B5
문화-탄허기념박물관 특별전
'성성하고 적적하라'

B6
학술 · 문화재
원효 오도처 직산인가 화성인가

“출·재가 본분 다하면 갈등 없어”

‘유억근 이사장’ B1면에서 계속

현 불교계의 현실에 대해 묻자 유 이사장은 위와 같이 답했다.

유 이사장이 삼보회 이사장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소리 없는 ‘재가불교운동’이었다.

소금, 삶의 소금이 되다

마음을 부처님으로 채우기 시작한 유 이사장은 이제 현실의 삶을 채워야 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딸아이의 삶을 채워야 했다. 쉽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부처님을 만난 처음 자리가 삼보회였다면, 유 이사장이 삶과 만난 처음 자리는 (사)한살림이었다.

(사)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믿으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앙이 날로 심각해지고,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의 자급 기반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 날로 힘겨워지고 있다. (사)한살림은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 절제된 소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문화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생활 실천을 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사)한살림의 생산자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유 이사장의 생각은 고향에 가 닿는다. 바로 ‘소금’이었다. 유 이사장은 신안군 임자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염전을 보면서 자랐다. 그의 힘든 마음이 어릴 적 할머니의 ‘관세음보살’에 가 닿았듯, 그의 힘든 삶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고향의 염전이었다.

그는 고향의 천일염을 받아다 간수를 제거하는 등 다시 유억근의 천일염으로 만들었다. 유 이사장은 (사)한살림의 생각에 공감했다. 당시는 천일염을 바로 가정의 식탁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유 이사장은 대량포장 밖에 없었던 당시의 유통구조와 천일염의 식자재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다. 위생 등 당시 천일염의 성분을 개선하고 포장의 개념을 다시 생각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에는 없었던 좀 더 깨끗하고 작은 포장(3kg)의 천일염을 생각했다. 작은 매출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생각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소금의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소금은 삶의 소금이었다.

“부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유 이사장은 삼보회 회원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 매주 법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앞서 말했듯 그 세월은 거저 쌓인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유 이사장은 힘들 때마다 부처님과 이야기했다. 유 이사장은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했다. 특히 12년 교제 끝에 결혼한 아내에게 그랬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7년 동안에도 아내 이정심(61) 씨는 묵묵히 유 이사장의 곁에 있었고, 꿈을 포기한 한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 그런 아내와 천진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나 작은 자신의 모습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리고 주의의 시선 또한 유 이사장을 힘들게 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유 이사장의 사업은 신통치 않은 것이었다. 당시는 친환경이나 생명운동 같은 이슈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농사에서 농약은 당연한 것이고, 공장 굴뚝의 연기 또한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유 이사장의 생각이 주변의 공감을 얻기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생각엔 신념이 있었다. 그렇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야 하는 가족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았다.

유 이사장의 신심은 그렇게 자라고 또 자랐다. 소금 포대를 들고 승강기가 없는 건물을 오르내릴 때는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계단을 올랐다.

소중한 도반, 가족

“부처님, 아내와 딸을 지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유 이사장이 힘겨운 시절을 딛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공부의 공덕도 있었으나 그와 함께 가족의 힘도 컸다. 아내 이정심 씨와 딸 유지원(35), 유도원(34) 씨다. 유 이사장은 한 동안 지하 방에서 살았다. 그 시절 유 이사장의 바람은 가족을 지하 방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유 이사장의 사업도 부처님 공부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유 이사장과 그의 아내 이정심 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향마을 이웃이었다. 유 이사장은 고등학생 때 이 씨의 중학교 진학 공부를 돕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서울로 올라와서도 이 씨와의 인연이 이어졌고, 유 이사장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 씨는 유 이사장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유 이사장이 삼보회 회원이 되고난 후부터는 이 씨 역시 유 이사장과 함께 매주 삼보법회에 참석하며 불심을 키웠다. 유 이사장의 33년 만다라 속엔 이 씨의 33년도 함께 있음이다.

유 이사장의 큰 딸 유지원 씨는 유 이사장이 한참 힘겨웠던 시절에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지원 씨는 아버지의 불심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유 이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원 씨 역시 향을 담았던 종이였다. 그는 동국대(경주) 불교회화과를 졸업했고, 동국대(서울)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를 마치고, 동국대(경주)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현재는 한국불교학회 편집 간사 소임을 보고 있다. 박사 과정 전공은 중관학이며, 연기와 공성의 논증 방법이 시대, 지역, 학파의 추이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미술관 학예연구실에 근무하며 한국 불교미술 소장품 연구와 및 특별전시의 영문 보고서와 자료집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중관학 연구로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글로벌 박사펠로우십에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다.

유지원 씨의 동생 도원 씨 역시 아버지의 신심을 닮았다. 도원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법회에 참석해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성공양의 공덕을 지었다. 공석이 되어버린 피아노 연주자를 대신했던 것이었는데, 그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삼보법회 피아노 연주를 맡았다. 여느 아이들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삼보법회는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부모님을 따라 매주 절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소임을 맡고 법회에 참여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일이었을 것이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시절의 휴일을 매주 법당에서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이 삼보회의 이사장이 되기까지 30여 년의 세월 속 구석구석엔 가족이라는 도반의 향기가 있었다.

임자도 화엄경전래 유적비 추진

1986년 ‘마하탑’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유 이사장은 1995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고향에서 받아오는 소금으로는 부족했다. 유 이사장은 고향 임자도로 내려간다. 그리고 자신의 염전을 일군다. 유 이사장의 마하탑 소금은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지금의 ‘볶은 소금’과 ‘구운 소금’ 등은 유 이사장의 마하탑에서 시작됐다.

“부처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저를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등명법등명’,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과 이야기하면서 힘든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가피 많이 입었으니 제 삶도 이제 의미 있는 회향불사를 해야죠.”

유 이사장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된 고향 임자도에서 자신의 삶을 회향하고픈 생각을 품었다. ‘임자도 화엄경전래 유적비 건립’이 그것이다. 임자도는 화엄경전래지로 전해온다. 조선 숙종 7년, 신안 앞바다 임자도에 난파선 한 척이 도착했다. 배 안 나무궤짝 안에는 불경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중국의 화엄학자인 거사 섭기윤이 1625년 간행한 〈화엄경소연의초〉도 있었다. 임자도는 성지인 것이다.

하지만 임자도에 그런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법당 하나 없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소금으로 재원을 만들고 뜻을 함께 하고픈 대중들과 함께 ‘임자도 〈화엄경〉 전래 유적비’를 건립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임자도에 작은 법당 하나도 세우고 싶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올린 지도 벌써 10년 되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오늘도 임자도와 서울 삼보정사를 오가며 유억근의 만다라를 그리고 있다.



임자도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유억근 이사장.



연꽃어린이학교 수련회 참가한 유지원, 도원 씨의 어린시절.



2017년 삼보회 8대 이사장 취임식.

가족, 소중한 도반이 되다

힘겨운 시간 함께 한 아내

두 자녀 모두 불심 닮아

장녀, 불교미술·중관학 전공

2녀, 초5~고3 매주 법회 참석

피아노 연주로 음성공양

고향의 천일염으로 사업

소금 지고 계단서 “관세음보살”

볶은 소금 등 패러다임 바꿔

임자도에 화엄경전래비 추진



지역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서울	경국사	9.22~9.26	추석맞이 특별 휴식형	누구나
	금선사	9.22~9.26	추석연휴(休) Just Hue(休)	누구나
	봉은사	9.22~9.23	다도배우기 템플스테이	성인
	화계사	9.21~9.22	한가위를 북한산에서	초등~성인
대구	동화사	9.23~9.26	휴식형 템플스테이	성인
경기	법륜사	9.23~9.25	달님에게 말해봐~	누구나
	봉선사	9.23~9.26	달과 함께 쉬어가다	누구나
	백련사	9.23~9.25	한가위, 마음 달을 찾아서	중등~성인
	용문사	9.24~9.25	보름달밤의 캠프파이어	누구나
	용주사	9.22~9.24	한가위 집중 명상 템플스테이	고등~성인
	육지장사	9.22~9.26	경제가 어렵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해야지요 (단식형, 체험형 템플스테이)	성인
		9.22~9.26	한가위 게르마늄 스파+디톡스 체험형 (단식형 템플스테이)	성인
	흥국사	9.22~9.27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강원	낙산사	9.23~9.26	휴식형 템플스테이	중등~성인
	백담사	9.23~9.24	제15회 한가위 템플스테이	초등~성인
	설악산신흥사	9.23~9.26	한가위엔 한가하게	성인
	월정사	9.22~9.23	추석맞이 달빛포행 템플스테이	초등~성인
충북	석종사	9.23~9.26	달빛 머무는 날에	성인
충남	갑사	9.23~9.25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마곡사	9.24~9.26	마곡사 전통놀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무량사	9.22~9.26	한가위를 한가롭게 무량사에서	누구나
	서광사	9.23~9.26	나를 찾아서...	누구나
전북	수덕사	9.23~9.25	2018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내소사	9.22~9.24 9.24~9.26	추석 달빛따라~	누구나
전남	도갑사	9.22~9.23	꿈에 그린 달빛(체험형)	누구나
		9.22~9.26	꿈에 그린 달빛(휴식형)	누구나
	대흥사(해남)	9.23~9.25	추석 디디고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미황사	9.23~9.25	추석 달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화엄사	9.21~9.25	한가위 보름달아!	누구나
경북	골굴사	9.22~9.26	달을 품은 움직이는 선	누구나
	심원사(성주)	9.23~9.26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누구나
	직지사	9.22~9.26	내 마음의 작은 쉼표	누구나(외국인)
		9.22~9.26	내 마음 바로보기	초등~성인(외국인)
	축서사	9.22~9.26	쉬고 쉬고 추석도 쉬고	누구나
경남	문수암(산청)	9.22~9.26	문수암 달빛 아래 노닐다	성인
	통도사	9.23~9.25	통도사 달빛아래	누구나
	쌍계사(하동)	9.22~9.25	2018 내 안의 달빛을 머금다(체험형)	초등~성인
제주	관음사	9.21~9.26	마음 숲 여행	초등~성인
		9.21~9.26	욜로 옵서예	초등~성인

만송행수, 조동종 대표하는 선사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⑰ 금원시기 조동종의 만송행수선사



그림 · 강병호

만송행수(萬松行秀 · 1166-1246)선사의 속성은 채(蔡)씨이며, 현재 하남성 회경(懷慶)사람이다. 남송때의 청원 문하의 22대로서 조동종의 승려이다. 자는 보은(報恩)이며, 호는 만송노인(萬松老人)이다. 15세 때에 형주(邢州)정토사 찬윤선사(贊允禪師)에게 삭발 후에 출가하고 오래지 않아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는 원정 종원 원년(元定宗元年 · 일설에는 단평 · 1236) 연경(燕京 · 지금의 북경)에서 입적하였으며 세수는 81세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입적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사리탑을 세웠다. 전국에 두 곳의 탑을 세웠는데, 하나는 북경(西城區西四南丁字街西)에 있는데 세칭 만송노인탑(萬松老人塔)이라고 칭하며, 다른 하나는 형대(邢台市西南古塔群中)에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문화혁명 중에 훼손되어서 지금은 없다.

그는 조동종 제14대 종주로서, 당시 강남의 천동여정(天童如淨 · 1163~1228)과 함께 조동종의 양대 종장(宗匠)으로 이름을 날렸다. 금나라 장종 명창 4년(章宗明昌 · 1193)년에 황제로부터 비단 대가사를 하사 받기도 했다. 그는 남하해서 자주 대명사(磁州大明寺) 설암혜만(雪岩慧滿 · ?~1206)선사를 참방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철오(徹悟)하였다고 한다. 법을 얻은 후에 그의 명성이 각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각지에서 그에게 설법을 청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석해주기를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청을 모두 거절하고 형주(邢州)로 돌아가서 정토사(淨土寺)에 만송헌(萬松軒)을 건립해서 그곳에서 대중을 제접하면서 자신의 수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만송(萬松)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다. 그가 수년 동안 정토사에 주석할 때는 그를 참방하러 오는 이가 끊이지 않았고, 한편 조야의 모든 이들이 그를 경모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북방의 승속들로부터 추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나라와 몽고 양국의 조야로부터 보편적인 추종과 존경을 받았다. 금나라(明昌四年 · 1193) 장종(金章宗 · 1168~1208)이 매우 그를 공경하기를 그가 궁전에 설법을 할 때 "장종황제는 몸을 굽혀서 예를 올렸다(于內殿說法, 章宗躬身迎礼)."고 전해진다. 몽고가 금나라를 멸망시킨 후에도 만송선사는 지속적으로 몽고의 조정으로부터 예우를 받았으며, 후에 몽고 조정의 국사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원대에 전체 중국불교계에 국사라고 칭하는 사람은 오직 9사람뿐이다. 이 가운데 만송행수선사가 한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당시의 북방불교의 영수가 되었다.

만송선사가 종용암(從容庵)에 거할 때 야율초재(耶律楚材)의 초청에 응해서 굉지정각(宏智正覺)의 평창(評唱)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저본 삼아 〈종용록(從容錄)〉 6권을 지어서, 조동종의 선풍을 전했다. 그 외도 〈請益錄〉, 〈祖燈錄〉, 〈釋氏新聞〉, 〈鳴道集〉, 〈四會語錄〉 등의 저작이 있다. 특히 많은 저술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종용암록(從容庵錄)〉과 〈청익론(請益論)〉이다. 〈從容庵錄〉은 만송행수가 천동정각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평창(評唱)한 선학의 명작이다. 〈從容庵錄〉은 매칙(每則)의 공안이 모두 5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제1부분은 시중(示衆)으로, 공안을 위해서 서론을 지었다(示衆). 제2부분은 정각의 〈頌古百則〉에서 발췌한 공안이다(列擧公案). 제3부분은 공안에 대한 평창(評唱)이다(列擧頌古). 제4부분은 정각의 〈頌古百則〉에서 발췌한 송고(頌古)이다(공안, 頌古中夾注). 제5부분은 송고에 대한 평창이다. 때문에 〈從容庵錄〉의 요지는 〈頌古百則〉의 깊고 오묘한 것을 찬석하였다. 그러나 이 〈從容庵錄〉은 완전히 〈벽암록〉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편 그는 비록 선학 위주의 수행을 하였지만, 화엄에 정통했고, 정토를 추종했기 때문에 금대(金代) 정토종의 5대 영수(領袖)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특히 〈창평천동정각화상송고종용암록(評唱天童正覺和尚頌古從容庵錄)〉은 당시 선종의 명작이 되기도 했다. 그의 재가 제자인 야율초재(耶律楚材)는 서(序)에서 "조동의 혈맥을 이었으며, 운문의 善巧를 갖추었으며, 임제의 機鋒을 구비했다(得曹洞血脈, 具雲門善巧, 備臨濟機鋒)."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그는 선종의 제종파의 사상은 물론이거니와 유가의 사상도 계승발전시켰기 때문에 세인들이 그를 "유석을 겸비하였고, 종설(宗說)에 정통하였고, 변재가 무애하다(儒釋兼備, 宗說精通, 辯才無礙)."고 평했다. 송대 원초(元初)에 선종의 오엽(五葉) 가운데서 臨濟, 曹洞宗이 크게 흥성하였다. 때문에 당시에 세인들은 "임천하, 조일각(臨天下, 曹一角)이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이러하다. 즉 "임제종풍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광대하게 뒤덮고 있다. 조동종의 위엄은 동남에 떨쳐서 영향이 매우 깊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조동종이 성행한 이유는 바로 만송행수선사가 온힘을 다해서 조동종의 선풍을 드날린 덕택이다. 송원이후로 선정쌍수(禪淨雙修)가 매우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도 역시 선정쌍수를 중시하기도 했다.

천동여정과 조동종 양대 종장
혜만 참방 한 달만에 철오
송원 이후 선정쌍수 성행

만송행수선사가 살았던 시기는 중국에서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한 상태였다. 즉 금(金), 원(元), 송(宋)의 정권이 함께 존재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그는 금나라 조정과 밀접한 왕래를 하였고, 원나라 조정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송나라 사람들은 그를 완곡하게 비평을 하였고, 따라서 그에 사적에 관한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그러나 도리어 선종발전사에서는 그가 남긴 위치와 명성은 지워지지 않았다. 또 그의 인간적인 면을 잘 드러내는 고사가 있다. 원대 1236년 원대조정은 승려들에게 고시(考試)제도를 시행하였다. 불합격자는 귀족이라도 모두 환속을 시켰다. 원대 조정에서는 이러한 중책을 행수선사에게 맡겼다. 행수선사와 임제종의 해운인간(海云印簡 · 1202-1257)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잘 방편을 사용해서 설사 일자무식이라도 도행이 양호하면 한 사람의 승려도 낙방을 시키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

행수선사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법을 얻은 제자들만 120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걸출한 제자 5명이 있는데, 설정부유(雪庭富裕 · 1203-1270), 화엄지온(華嚴至溫 · 1217-1267), 임총종륜(林泉從倫 · 1223~1281), 천송명덕(千松明德)과 담연거사(湛然居士 · 야률초재)등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오걸(五傑)'이라고 칭하였다. 이들은 원나라 초에 모두 불교와 정치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간단하게 이들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총종륜(林泉從倫)그는 일찍이 만수사(萬壽寺)와 보은사(報恩寺)에 주지를 역임했다. 지원(至元 · 1272)9년에 원나라 세조의 초빙으로 궁전에 들어가 설법을 하였는데, 그는 '從容問辨, 抵暮而退, 帝大悅' 라고 했다. 그는 〈화엄〉, 〈능가〉, 〈열반〉 등 경전을 인용해서 선은 '불성', '여래장'이며, 즉 '달마이래로 서론 전한 것은 여래청정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것으로 선은 곧 불교의 정종이 된다고 하면서,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다. 그가 원나라 초엽 연경의 민충사(憫忠寺 · 북경 법문사)의 주지를 역임할 때 도교와 불교가 논쟁을 할 때 불교의 대표자가 되기도 했다. 그의 저작으로 유명한 〈공곡집(空谷集)〉, 〈허당집(虛堂集)〉 등이 있다.

화엄지온(華嚴至溫)도 만송행수선사를 15년간 좌우에서 시봉을 하였고, 특히 당시 유명한 정치가 유병충(劉秉忠)과 유년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다. 그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는 당시 관서오로(關西五路)를 통섭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이 지역의 불교방면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후래 승려들이 평하기를 '今人獨味萬松評唱語, 而不聞公(至溫을 말함)有回天之力'이라고 했다.

설정부유(雪庭富裕)는 역시 10여 년을 행수선사에서 학습을 하고, 금나라와 원나라가 교전을 할 때, 훼손된 숭산소림사를 행수선사와 해운인간(海云印簡)의 지지를 얻어서 복원하고 부흥하였다. 후에 헌종(憲宗)을 알현하고, '총령석교(總領釋敎)'라는 명을 받고 각지의 훼손된 사찰 236처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그의 공으로 소림사는 조동종 행수선사계통의 중요한 전법지가 되었다. 그도 역시 불도논쟁에 참가한 중요한 인물로, '광종정변(光宗正辨)'이라는 호를 받기도 했다.

담연거사(耶律楚材)는 역시 만송의 제자로서 많은 보살도를 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비록 원대(몽고)조정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중원의 정치 경제문화질서와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했다. 후에 그는 원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으며, 탁월한 정치가로서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러한 걸출한 제자를 배출해낸 만송행수의 선종에 대한 공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뛰어난 수행력과 그의 중량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임제종의 선법과 임제 계통의 선사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기타 오가칠종 가운데서 임제종 외에는 다른 종파의 선법 및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만송행수는 원대를 대표하는 조동종의 걸출한 선사로서 선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선종의 일대종장으로 당시의 종교계 정치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금나라 원나라의 조정대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대부 문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또 그를 혹자는 그를 평하기를 "조동종 아래에 만송 한 가지가 있어서, 제방을 덮고, 다시 천하를 그늘지게 하며, 세상을 모두 들어서 조도(祖道)를 중흥하고, 법해에서 용이 논다(洞山之下, 萬松一枝, 布列諸方, 蔭複天下, 舉世鹹謂中興祖道, 法海之遊龍也)."고 하였다.

〈동국대 강사〉





이번주 신간은… **〈과자는 마음이다〉** 윤영달 지음/지에이북스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50년간 과자에 빠져 산 저자가 크라운제과의 경영 위기를 경험한 뒤 북한산에 올랐다가 대금 소리를 듣고 음악의 치유 기능에 눈뜨면서 시작된 예술경영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自傳)이자 경영 에세이다. '과자는 마음이다'는 시간순으로 사건을 나열한 기존 최고경영자와 대기업 창업주들의 자서전과는 달리 인생의 시기별로 8개 키워드에 따라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4~9/20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선불교를 철학하다)	이진경	모과나무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산사 순례)	유홍준	창비	8	그래도 불교(성법 스님의 불교 강좌)	성법스님	민족사
4	붓다의 철학(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불광출판사	9	반야심경 여행	동봉스님	도반
5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10	대행선사의 관법수행	청강스님	운주사

인류 갈등과 모순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는 '佛敎'



그래도 불교

성법 지음/민족사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소 '한국불교의 병폐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성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작금의 한국불교의 혼란은 승가의 문제인 인재(人災)이지 불법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승가의 폐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화엄경 십지품〉 같은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 연구되고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교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준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편집됐는데, 1부는 성법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에게 강의해 온 '진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불교 교리' '수행' '현실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등을 정리한 것이고, 2부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새로 쓴 화엄경 십지품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성법 스님은 적폐 청산, 불교 개혁이 화두인 현 상황에서 화두 타파 후, 한국불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전에 의거한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통해 비불교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나눔과 봉사 등 선행의 실천을 통해 진짜 대승불교답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근 언론매체의 가십거리로 등장하는 조계종 적폐의 원인을 대체로 몇몇 권승들의 권력 남용과 불투명한 재정이라고 한다. 성법 스님은 이 책의 머리말서 "재력을 몇몇 승려가 개인 소득처럼 유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승가 모두의 수치"라고 하면서 경제와 정보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오늘날이야말로 사찰에서 경제와 정보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지역복지와 고령화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절호의 기회요, 사찰은 이러한 보살행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파불교가 사변(思辨)에 치중했다면 대승불교는 보살로서의 적극적인 이타행의 수행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중략) '온 법계에 합일하는 큰 사상, 일체 중생 구제의 보편화' 등 세계 종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불교로 거듭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중략) 〈화엄경 십지품〉의 10바라밀은 그 전제가 '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과 '수행의 목적은 오직 중생 구제'라는 대승불교의 숭고한 목적지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명한 〈십지품〉만을 근거로 평가해도 현재 한국불교의 승가와 재가의 행태는 명백히 비불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 및 현실 문제 해법 정리
〈화엄경 십지품〉 해설도 덧붙여

성법 스님은 이 책, 특히 2부를 새로 쓰게 된 동기를 현재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대승불교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부파불교의 폐단을 반성하고 대승불교가 흥기할 당시 도약과 혁명과 같은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화엄경 십지품〉'이 있었고, 조계종 개혁 이후에 새롭게 담아야 할 불교 역시 대승불교, 보살행의 실천이기에, 이 책의 2부를 화엄경 십지품을 10바라밀행과 접목해 해설했다.

성법 스님이 화엄경 십지품에 주목하는 것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요체를 상세히 설하는데다 수행의 열 단계인 10지가 10바라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바라밀까지는 자리 수행 덕목이고, 나머지 4바라밀이 이타 수행의 완성의 길인데, 6바라밀만 강조하고 이타행을 등한시한 것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요, 불교의 대중화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설파한다.

'禪語'는 힘얻고 작동케 하는 위대한 경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

이진경 지음/모과나무 펴냄/1만 8천원

선(禪)에 대한 치열한 사유의 기록

철학자 이진경이 선불교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한 기록이다. 저자는 철학자의 눈으로 본 불법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저 짖기만 하는 개는 부처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표현하며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불성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철학자가 바라본 매혹적 선(禪)의 세계

저자 이진경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글쓰기란 자신을 매혹시킨 알 수 없는 힘에 대해 쓰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쓰면서 조금이나마 그 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벽암록〉으로 촉발된 저자의 호기심은 다양한 선어록을 접하며 철학하는 길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쉽게 떨칠 수 없다. 강하게 휘말려들 정도로 매력적인 선(禪)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저자는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이 '경악스런 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건 이 세상을 철학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인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쓸 수 없던 것을 쓰게 되는 일. 그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와는 다른 나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과는 또 다른 내가 되는 '경악스런 사건',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다.

막연한 정답 찾기 빠진 세상서 답 구하는 경험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진 식견을 알아보고 깨어줄 분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던지는 저 '일반적인' 방황에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그것은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말들이다. 아니, 나도 하려고만 하면 누구에게든 해줄 수 있다. 이는 선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반대되는 것 아닐까? 공안으로 전해오는 선사들의 언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타당한 '일반적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다. 만나는 학인들의 그때마다 다른 상태를 포착해 그의 식견을 깨주기에 적합한 언행을 날리는 것이다." 저자는 이 때문에 선사들의 질문, 이를 테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상반되는 답이 나온다고 말한다. "똑같은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때론 미혹이 되다가 때론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던지는 항상 올바른 대답은 누구의 식견도 깨주지 못한다. 그래서 선승들은 자신이 했던 말조차 '사구(死句)'라는 생각에 뒤엎고 깨부수고 하지 않았던가."

부처가 말하는 삶, 당신이 원하는 삶은?

저자 이진경이 깨달은 것은 선(禪)의 언행이 당송 시대의 케묵은 화석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연기적 조건서 다시 힘을 얻고 작동하게 되는 위대한 경험이다. 각자 처해진 조건서 각자의 언어와 섞여 새로운 언행을 만들며 재탄생하는 엄청난 경험이다. 그런 경험으로 우리의 세상이 좀 더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 됐으면 하는 지식인의 원(願)이다.

김주일 기자

경전의 힘은?… 위로, 깨달음, 삶의 깊이



경전의 힘

정운 스님/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헤르만 헤세 역시 불교에 심취한 작가였다. 그는 〈맛지마니까야(중아함경)〉를 읽고 소설 〈싯다르타〉와 〈데미안〉을 썼다. 〈데미안〉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이 경전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안젤리나 졸리의 몸에도 경전 구절이 한자 그대로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영화 〈인랑〉의 원작자, 오시이 마모루 감독 역시 불교적인 색채를 자신의 애니메이션에 넣기로 유명하다. 〈공각기동대2: 이노센스〉에는 주인공 쿠사나기의 입을 통해 〈숫타니파타〉의 구절을 변용한 대사가 등장한다.

부드러운 표현 속 숨긴 검같은 사유의 묘미

이처럼 경전은 품격과 우화, 비유적인 매력을 고루 갖춘다. 〈경전의 힘- 지금 나에게 답을 주는 고전 중의 고전〉에는 붓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아함부 경전부터 화엄경, 금강경, 유마경, 오묘한 깨달음이 담긴 근현대 선사어록까지, 불교의 명언을 한 권에 볼 수 있다. 신문 사설 등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인용구의 출처가 불교 경전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고픈 진리

"삶이 나를 가로막을 때 그 말이 힘을 주었다" 2,600여 년을 내려온 불가(佛家)의 경전. 경전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때로는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진리를 일깨운다. 책에서 소개한 명구절, 명문장만 읽어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친구 #평온 #고독 #성취 #소유 등 키워드별로 목차가 나뉘어 있어 쉽게 관련 명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랫사람에게 조언이나 쓴 소리를 해야 할 때 보다 현명한 태도로 말하고 싶다면 〈3장 감로와 독약이 혀 안에 있다〉 중 #_조언, 충고_, 애착 때문에 괴롭다면, 〈4장 집착을 내려놓다〉의 #사랑 #애증 #질투_를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를 큰 범주로 분류했기에, 경전 고유의 의미와 독자의 개인적 해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별로 경전의 처방을 찾을 수 있다. 작은 양장본이기에,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도 될 수 있다.

'한 권으로 읽는 경전'을 통해 경전에 흥미를 느꼈다면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입보리행론 등 세부경전을 읽을 준비도 마친 셈이다. 이처럼 경전을 제대로 접하고 싶은 이들에게 〈경전의 힘〉은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바에 머문 흔적, 사진 한 장

탄허기념박물관 2018 특별기획전
근현대를 대표하는 큰스님 사진전
'성성하고 적적하라' 展 9.14~10.2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탄허대종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탄허기념박물관(관장 혜거)은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8년 특별기획전으로 근현대를 대표하는 큰스님 사진전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하라'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정신을 지키며 올곧은 수행을 이어온 큰스님 열여덟 분의 사진과 말씀을 모은 자리다. 이번 '성성하고 적적하라' 展은 2017년 〈팔풍취부동〉전에 이은 두 번째 큰스님 사진자료전으로, 1945년 이전 큰스님들과 사찰전경 사진, 1945년 이후의 사찰전경과 큰스님들의 사진을 고증자료로서 수집해 놓고자 시작된 기획전시이다.

"젊었을 때, 처음 사진 찍는 일이 유행일 때가 있었다. 그 때 대부분 스님들은 '중이 사진은 뭐하러 찍느냐'고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사찰 행사 때 단체로 찍는 사진마저도 찍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서 먼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어른들의 모습을 뵐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 자기 본인 또는 문중에 보관하다 유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길이 모셔야 할 큰 어른들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 혜거 스님 서문 중-

법만을 의지해 살기로 한 출가자에게 법 밖의 것들은 '불이'와 '일여'의 문제일 뿐으로, 사바에서의 시간은 굳이 표시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아닌 듯하다. 노장 생전의 사진 한 장 찾아내는 일이 '일'인 것을 보면, 열반에 든 노장의 흔적을 찾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나간 것일지라도 뒷사람을 위한 표식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노장들의 모습이 법에 의지해 살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 역시 지난 전시와 마찬가지로 큰스님들께서 안거했던 국내 30여 곳의 사찰과 성보박물관, 각 문도회를 통해 어렵게 모은 열여덟 분의 큰스님 사진 100여 점 중에서 54점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도록에 수록했다. 18인의 큰스님은 만공 · 구하 · 한암 · 이종욱 · 춘성 · 운허 · 금오 · 벽안 · 향봉 · 청담 · 서운 · 보문 · 인홍 · 향곡 · 월하 · 경산 · 숭산 · 일타 스님이다.


서운 스님(우측 6번째) 동화사 주지 당시 도견 스님(좌측 6번째) 등과 함께.


향곡선사 젊은 시절.

성성적적(惺惺寂寂)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오는 문장으로, 고요하면서도(寂) 의식이 맑게 깨어 있는 상태(惺)이며, 이것은 모든 수행에서 근본으로 삼는 중요한 태도이다. 이 말은 비단 수행자들에게만 필요한 문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 불화, 갈등과 같은 소란스러운 번뇌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전시대를 살다간 큰스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마음의 중심' 잡는 방법, 즉 '성성적적'을 이번 전시의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다.

혜거 스님이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사진전을 진행하는 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사바세계에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큰스님들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전시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스님들의 말씀과 수행은 문도들에 의해 대부분 말과 글로 기록되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전되기도 하고 심지어 전혀 다른 인물이 큰스님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탄허기념박물관은 현재의 불교계 인물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종계의 중요한 스님들의 삶에 대한 기록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별전을 개최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1, 2차 전시회 때 누락되었던 사진을 보완 수집하여 기록물을 만들고 큰스님들의 사진과 사찰전경의 사진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중차대하고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여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토 세상이 일상의 세계"

'The pure land of vairocana-비로자나 정토'
양선희 개인전 10월 3~9일, 갤러리 이즈

법신의 세계인 비로자나부처님의 정토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의 도제 전승자인 전수조교 양선희 불화가가 그 모습을 그려냈다. 양선희 불화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 제3전시장에서 '제13회 양선희 개인전 'The pure land of vairocana-비로자나 정토'를 개최한다.

문수동자와 사자는 화신불이 되어 세상으로 뻗어나가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모습은 커다란 달에 비유했으며, 그 달 속에 평화로운 일상을 표현했다. 사자, 봉황, 물고기, 개구리, 꽃게, 잠자리 등은 수미단과 벽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불교소재들이다. 사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물고기는 수행자를, 개구리는 불도를 이루려는 기다림을, 잠자리는 자유, 꽃게는 번뇌를 끊는 단호함을 상징한다.


선재와 새침떼기 친구들 122×162㎝.

꽃과 새로 장엄된 세계는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 차있다. 이처럼 친근감 있는 불교적 소재와 사계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주제별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달 속에 세상을 표현한 '달에 핀 꽃' 20점, 수미산 위에 '높이 뜬 달' 17점, 생명수와 같은 'Vairocana Tree' 3점, 삼보사찰의 한국의 세계를 담은 'The pure land of vaircana' 3점 등 삼베 바탕에 전통 석채 천연안료로 그린 4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영재 미술사상가는 평론에서 "양선희의 참신한 시각과 진지한 해석이 해맑고 명증한 화면으로 거듭난다. 확산되는 시각은 평안한 자유를 체감하게 하고 재해석되는 공간과 위상은 화면의 중량감을 최소화한다. 인물과 도상에 집중되던 시선은 시간과 공간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한다. 주제 집약적인 종래의 화면구성은 다원구성의 확산 시각으로 바뀐다.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어 보는 사람에게 동비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던 화면구성이 좀 더 큰 화면의 안에서 낮지만 울림이 좋은 목소리로 전체 속의 하나와 또 하나들을 조화시킨다"고 평했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불화를 감상하고 불화 속 정토의 세계가 일상의 세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일이다"고 말했다.

양선희 불화가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으며,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 전공)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1991년과 1992년에 전승공예대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법화의 세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등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한 자리에 모인 세종대왕 관련 국보 ·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1층 중 · 근세관 조선실 9.19~12.2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즉위 600주년(즉위일 음력 1418. 8. 11.)을 맞이하여 세종시대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상설전시실 1층 중 · 근세관 조선실에서 특별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18년 8월 국보 승격이 예고된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 보물 제1404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 보물 제1405호'를 비롯하여, 최근 구입한 〈월인석보(月印釋譜)〉 권20(보물 제745-11호),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 보물 제1848호〉로 한 곳에서 만나기 어려운 귀중한 문화재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18년 7월 구입한 〈월인석보〉 권20(1459년, 세조 5)과 〈목우자수심결언해(1467년, 세조 13)〉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의 초기 모습과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월인석보〉는 최초의 불경 언해서로, 세조(재위 1455~1468)가 수양대군시절 어머니 소헌왕후(1395~1446)의 명복을 빌며 지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釋譜詳節(1447년)〉과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감탄하며 석가모니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며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 1449년)〉을 함께 편집하여 간행한 책이다. 〈월인석보〉의 글씨체는 〈훈민정음〉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자로서 훈민정음이 생명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월인석보 권20.

〈목우자수심결언해〉는 고려시대 승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쓴 〈목우자수심결〉을 세조가 직접 구결하고, 신미(1403~1480)가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천만불자들의 PICK!
BTN 불교TV 대표프로그램
드라마 붓다 월·화 13:30
스트레스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화 15:00, 23:00
산은 산 물은 물 목·금 14:00
인연 그리고 법연 수 09:30, 14:30 / 금 08:30
일감스님의 만행 화 14:30, 20:30
원순스님의 능엄경강설 금 13:00, 22:00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금 09:00,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화 11:30, 19:30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수 08:30, 21: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수 11:30,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원효 깨달은 곳, 직산인가 화성인가

'현재진행형' 원효 스님 오도처 논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은 2번에 걸쳐 구법을 시도한다. 육로를 선택했던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에서는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아 당나라로의 구법을 그만두게 된다. 그 유명한 해골물을 마신 자리, 다시 말해 원효 스님의 오도처를 놓고 학계 주장이 분분하다.

포문은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열었다. 김 교수는 9월 14일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안양본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계절발표회에서 원효의 구법행로와 오도처에 대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구법행로가 '경주-경산-합천-함양-장수-진안-완산주-논산-공주-직산'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했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여러 날을 오랜 무덤서 보냈고 노숙이 가능했던 시기였던 만큼 661년 6월 즈음을 구법 시도 일시로 봤다.

오도처에 대해 김 교수는 원랑선사 비문에 나온 '직산(稷山)'을 주목했다. 비문에는 '원랑선사는 배우고자하는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미묘한 이치를 공부하고자 직산에 우거했다. 이곳은 신승(神僧) 원효대사가 도를 깨친 곳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현재의 '천안 직산(稷山)'이 오도처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완산주에서 보덕화상에게 수학한 다음 배를 타기 위해 당항진으로 가려면 논산-공주-천안을 거쳐 직산을 지나야 한다"면서 "직산은 경기도에서 호서지방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으로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지명이 '말뚝 직(稷)'에서 '기장 직(稷)'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산 지역의 특산물이 기장이었고, 이런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서
김경집 교수 '천안 직산' 주장
서영일 "직산 범위 달라" 반박
선행 연구에선 '화성' 주장들도

이유로 지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됐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평택 수도사 주변 포승면 일대를 원효 스님의 오도처로 주장하고 있는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은 '직산'의 행정범위를 달리 해석해 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원장은 논평을 통해 "평택 수도사 주변 포승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 직산의 월경지(越境地 · 지방 행정단위의 소속 영역 중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지역)였다"면서 "농사는 어렵지만 항구로서 입지는 좋아 신라 말 고려 초 직산의 지방세력이 항구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산을 수도사 부근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묘사한 사찰 벽화. 최근 원효 오도처를 놓고 학자들의 주장이 분분하다.

앞선 선행연구들도 비슷한 주장이 이뤄진다. 평택시의 요청으로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가 2005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2006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충남 직산은 신라시대 사산현이었고 직산으로 고려 초에 변경돼 원랑선사 비문에는 사용될 수 없다"며 "원효의 오도성지는 당항성 외곽의 직산이며, 평택 수도암지가 오도처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한 엄기표도 후속 연구를 통해 "비문의 직산은 산 이름이며, 원효 오도처는 당주(唐州) 경계에 있고 이를 감안할 때 평택 포승면 수도암지가 주목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성을 오도처로 보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원효 스님의 구법행로를 주목하며 '화성 당항성' 부근을 오도처로 지목했다.

당시 고 교수는 "당시 남양만 당항포의 관할지가 당성이었고, 당성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으며, 중부횡단항로로 나아가는 출발지점이 남양만 당은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효의 오도처는 당항성 인근 어느 무덤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또한 원효의 오도처가 무덤이었다면 그곳이 현재의 사찰이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석학이 전한 '불교사상과 재현'

셰러-숍, 타이저 교수
리앤원 주최 학술강연회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에게 경전과 불교미술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리앤원은 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불교사상과 재현'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연회에는 크리스티나 셰러-숍(Cristina Scherrer-Schaub) 로잔느대학 명예교수와 스티븐 타이저(Stephen Teiser) 프린스턴대 교수가 초청됐다.

인도후기 불교철학과 티베트 불교철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셰러-숍 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아름답게 쓰고 재현하고 의식행하기: 불교 문헌과 전통에서의 조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셰러-숍 교수는 불경의 필사와 삽화, 불교 관련 예술 활동에 나타난 미적 · 종교적 체험 등을 설명했다.

셰러-숍 교수는 "불교 문헌에서 아름다움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인도 고대의 다른 문화적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야경〉류의 전통에서 상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초기 인도와 고전기의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세 불교신앙 및 의례와 돈황 사본의 전문가인 타이저 교수가 강연한 주제는 '불교 사원에 그려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였다. 그는 강연에서 인도와 중국의 불교 사원에 있는 생사륜 도상의 변천 양상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생사륜이 중국불교에서 적은 이유에 대해 생사륜이 안에서 그려지는 영역이 다른 맥락에서 단독으로 그려지고



셰러-숍 교수



타이저 교수

불교예술 내 체험 문제 살펴
사원 생사륜 변천 과정 강연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타이저 교수는 "우주의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 쪽의 영역은 중국불화에서 즐겨 다룬 소재"라면서 "중국의 중세 사원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아미타정토의 시각화는 대형 도시 사원에서 선호됐다"고 설명했다.

강연회에 앞서 9월 14일에는 서울대 인문대학 보름홀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 타이저 교수는 '돈황 사본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불경과 문서들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과 주요 사례들을 살폈다.

'고승과 경전을 따라 인도에서 파미르로, 다시 더 멀리: 불교의 신적 계위와 정치적 패러다임'를 발표한 셰러-숍 교수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비롯해 인도 신들의 수용과 토착 신들과의 교류, 이에 따른 계위상의 변화 등을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학술 단신

명상에는 어떤 작용 · 부작용 있을까

중앙승가대 대학원, 10월 20일 학술대회

명상과 상담치료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부작용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9시 45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명상, 자아, 초월, 치료 등 5개 세부주제로 진행되며 각 분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장애, 수행의 장애인가 발전의 토대인가'를,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명상, 힐링인가 레저인가'를, 박상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자아의 확립과 초월의 상관관계'를 발표한다. 또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심리치료의 치유적 기능과 그 한계'를,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논평자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 권선아 중앙승가대 교수, 임승택 경북대 교수,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 강명희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창건 100년 동불사 역사 · 성보 조명한다

동불사 · 동불연, 10월 13일 학술세미나

마곡사 공주포교당으로 건립된 공주 동불사(주지 현중)가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동불사 창건이 갖는 의미와 성보 문화재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공주 동불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불사 경내에서 '공주 동불사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에 창건된 사찰인 동불사가 마곡사의 공주지역 거점 포교 사찰이었던 점과 이를 바탕으로 펼쳐진 다양한 신행운동과 포교활동 등이 조명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주요 발표로는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설립 의미(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공주 동불사 목조여래좌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920년대 공주포교당의 포교방향(이병욱 고려대 강사) △공주 동불사의 근대불교신앙결사(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공주 동불사의 풍수지형(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올 가을, '중론'을 배워볼까

중관학당 10월 5일~11월 2일 강독 강좌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의 대표 저서 〈중론〉을 강독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불교여성개발원 1층 지혜실에서 〈중론〉 강독 강좌 가을학기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직접 맡는다. 신상환 대표는 타고르 대학으로 알려진 인도의 비스바 바라띠 대학의 인도-티베트학과에서 티베트학 석사 및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 캘커타 대학의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했다. 타고르 대학의 인도-티벳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어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용수의 6대 저작을 전역(全譯)한 〈중관이취육론(中觀理聚六論)〉을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들을 다루며 인도-티베트 불교의 입문 과정과 〈중론〉 1~16품까지에 대한 복습도 이뤄진다.

강좌 참여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참가비는 총 5강 12만원.(중관학당 후원회원 10만원) 문의(010)8801-4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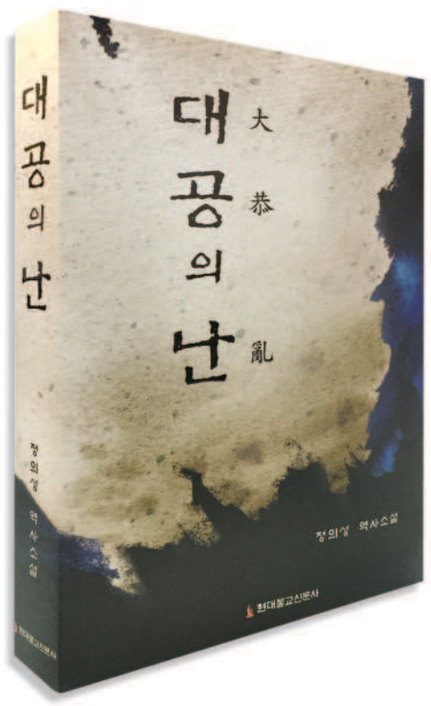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전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⑱ 산모 사형수 박순희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20년간 아이 안 생겨 남편 외도 허락
이혼하자는 남편 독살한 사형수
수감 후 임신 4개월 사실 확인
출산 3주 만에 아들과 이별, 형 집행



아이를 갖지 못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여인이 사형집행 전 교도소서 아이를 낳았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수사반장' 촬영현장.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김혜자(왼쪽 두 번째).

1970년 어느 날, 여자사형수의 처절한 절규소리가 집행장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착잡한 심경이 다시 일어난다. 그 여인은 교도소에서 몸을 푼 사형수 박순희였다. 박 씨의 기구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박 씨는 22세에 명문고 영어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선남선녀였던 두 사람은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나갔다. 박 씨와 그의 남편은 금슬이 무척 좋았다. 둘은 그렇게 행복한 삶만 계속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박 씨의 남편은 "당신이 있는데 아이 없어도 살지, 없으면 어때"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박 씨를 위해주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뜨거운 사랑도 해가 거듭될수록, 시댁의 눈칫밥이 늘수록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갖은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박 씨는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박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두 사람 모두 불임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42세가 될 때까지 임신 소식이 없으니 박 씨는 스스로를 옥죄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 박 씨는 갖은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박 씨는 남편의 외도를 허락하며 대를 이을 것을 제안했다. 박 씨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된다. 남편은 박 씨를 두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새로운 여인과 새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다.

결국 박 씨의 남편은 위자료를 조건으로 박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을 철썩 같이 믿었던 박 씨에게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다. 박 씨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오세요. 제가 평생 잘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나에게 소개하세요. 제가 잘 설득해볼게요."

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여인을 택했다. 박 씨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의 남편은 끝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박 씨는 쥐약을 탄 주스를 남편에게 먹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독살한 죄로 사형수가 됐다.

운명의 장난이 바로 그런 것일까. 형 집행 대기 중이던 박 씨는 문득 자신의 배가 불룩 나온 것을 느끼고 몸에 무슨 혹이 생겼나하고 의무실을 찾았다. 의무실에서 내려진 진단의 내용을 들은 박 씨는 숨이 턱 막혔다. 20년간 자신이 석녀(石女,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 줄 알았건만 그녀의 뱃속에는 그토록 원하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남편의 아이. 4개월 차였다. 임신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 무렵 박 씨는 불교에 귀의할 뜻을 두고, 나와 만나게 된다.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박 씨는 나에게 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해 하소연했다.

"제가 임신을 할 줄 알았다면 남편을 죽일 일도, 사형수가 될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랄 때는 온갖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어찌 이제 생긴답니까."

산모 사형수는 원칙상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3주 뒤 보육원에 보내야 했다. 아이와 3주 만에 헤어져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밤낮없이 오열했다.

교도관이 지켜보는 여사에서 박 씨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지던 날, 박 씨는 나를 붙잡고 호소했다.

"나중에 애가 커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다면, 내가 제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였다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박 씨의 사형집행 당일, 나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던 이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최후의 집행까지도 울부짖던 박 씨의 모습을. 박 씨의 마지막 유언은 "살고 싶어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살려 주세요"였다. 처절한 절규를 끝으로 박 씨는 생을 마감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의 외도를 허락했지만 끝내 배신감에 사랑하는 남편을 독살한 아내. 교도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임신 사실은 박 씨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녀를 괴롭게 했다.

끝없는 윤회를 통해 이번 생에 박 씨는 기구한 삶을 살다 갔다. 나는 박 씨의 내생은 이번처럼 기막히고 또 기막힌 삶 대신 다른 모습이 펼쳐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박 씨의 이 같은 이야기는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각색돼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석녀'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해당 편에서는 배우 김혜자가 주인공 여자사형수 역을 맡았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⑰ 지허 스님 · 야채 장수 아저씨

산에 가서 나무 해다 불 때고 아궁이 불꽃 보며 놀다가 고구마 구워 껌정 묻히고 입가 데어도 그 맛이 산해진미, 더는 없다고 혼자 노시며 가끔 소식 주시는 스님이다. 그 중 한 소식 지면에 실어 본다.

지난번 백양사에 오셨다가 여기까지 이 소납을 찾아오시니 옛 도반이 온 듯 정회가 깊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 시골 산중까지 몸 다친 변변찮은 중을 위하여 끓여 오신 죽은 아직도 몸속에서 식지 않고 자비의 맛을 지니고 있으며 나무에 박힌 공이처럼 뚜렷합니다. 업장을 짓지 않는 것이 향상의 길이라 하나 선업은 지어 보는 것이 무방하다 할 것이고 밋밋한 나무보다 어쩌다 공이가 있는 나무가 품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늘 감사해 합니다. 감사를 달리 대할 일은 없고 금둔사 바람 한 자락을 보냅니다.





트럭을 개조하여 여러 가지 야채를 싣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며 한 가지를 사더라도 덤을 얹어 주는 선량한 얼굴을 가진 아저씨다. 외출하려다 급한 마음에 3천 원어치를 외상으로 사면서 나중에 돈을 지불하면 되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수첩에 '불교인의 집 3,000원'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순간 당황한 적이 있었다.

'보살'이란 이름도 남이 불러주고 '불교인의 집'이라는 문패도 남이 달아준다는 것을 나에게 각성시켜준 고마운 아저씨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GREEN EARTH

녹색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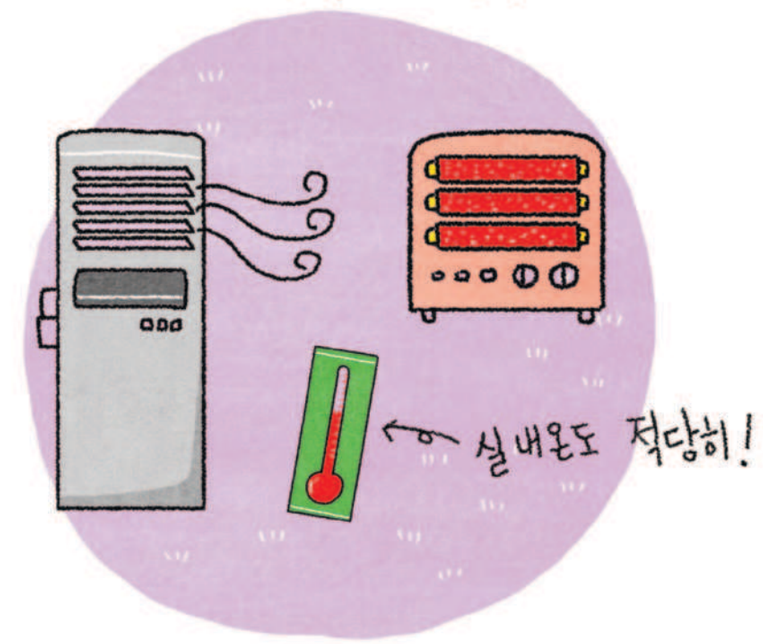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